



INNOVATING PEDAGOGY 2022

(한국어판)

교수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수, 학습, 평가에 대한 모색

Agnes Kukulska-Hulme, Carina Bossu, Koula Charitonos,
Tim Coughlan, Rebecca Ferguson, Elizabeth FitzGerald,
Mark Gaved, Montse Guitert, Christothea Herodotou,
Marcelo Maina, Josep Prieto-Blázquez, Bart Rienties,
Albert Sangrà, Julia Sargent, Eileen Scanlon, Denise Whitelock

Open University Innovation Report 10

Institute of Educational Technology, The Open University
Walton Hall, Milton Keynes, MK7 6AA, United Kingdom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Rambla del Poblenou, 156, 08018

Barcelona, Spain ISBN 978-1-4730-3678-9

Text and design © The Open University 2022

본 보고서는 2022년에 발간되었으며,
첫 번째 Innovating Pedagogy 보고서는 201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PDF 버전은 www.open.ac.uk/innovatin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s에 따라, 저작자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 보고서를 자유롭게 복사, 배포, 재창작,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표시한다면 (라이선스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사용을 보증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선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사본은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ited and typeset by The Open University
Cover photo by ThisisEngineering RAEng on Unsplash

Picture credits:

다음 출처에 대해 감사를 포함합니다.

Page 9: Aleutie / Getty 그림

Page 13: Josep Prieto의 그림. 허가를 받아 그림을 재사용함.

Page 14: Josep Prieto의 그림. 허가를 받아 그림을 재사용함.

Page 15: Github

Page 19: Unsplash에 있는 Jason Goodman의 사진

Page 24: Gender Spectrum Collection, <https://genderphotos.vice.com/>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CC BY-NC-ND 4.0) license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Page 28: Pixabay에 있는 Hatice EROL의 그림

Page 32: Unsplash에 있는 Malte Helmhold의 사진

Page 33: Courtesy of Ahmad Al Rashid / Instagram

Page 37: chicano power!, Jim Winstead, <https://www.flickr.com/photos/jimwinstead/129248731/>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2.0 Generic (CC BY 2.0)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Page 39: Unsplash에 있는 Surface의 사진

Page 41: StunningArt / Shutterstock

Page 46: Unsplash에 있는 Amy Hirschi의 사진

Page 50: Unsplash에 있는 Nareeta Martin의 사진

발간에 도움을 준 저작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추천 인용/출처 표시법:

Kukulska-Hulme, A., Bossu, C., Charitonos, K., Coughlan, T., Ferguson, R., FitzGerald, E., Gaved, M., Guitert, M., Herodotou, C., Maina, M., Prieto-Blázquez, J., Rienties, B., Sangrà, A., Sargent, J., Scanlon, E., Whitelock, D. (2022). Innovating Pedagogy 2022: Open University Innovation Report 10. Milton Keynes: The Open University.

한국어판 발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계보경, 권미영

Contents

요약	1
서문	5
하이브리드 모델	9
학습 유연성 및 기회 극대화	
이중학습 시나리오	14
교실과 산업 현장에서의 학습 연결	
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19
실무 역량 개발을 위한 인증된 단기 과정	
자기주도성 교육	25
자율성과 독립적인 학습을 위한 역량 강화	
와치 파티	29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영상 시청하기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	33
교육 인플루언서를 통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학습	
가정의 교육학	38
문화적 학습 공간으로서의 가정	
불편함의 교수법	42
학습과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의 감정 활용	
웰빙 교육	46
모든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웰빙 증진	
걷기와 대화	50
걸으면서 대화하기를 통한 학습 효과 향상	

요약

이 보고서 시리즈는 교사와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더 생산적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 학습법 및 평가법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열 번째 시리즈인 이 보고서에서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 교육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몇 가지 혁신 교수법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영국 The Open University 교육기술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al Technology)와 스페인 카탈루냐 오픈 유니버시티(Open University of Catalonia) 연구진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발간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학적 혁신 기법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 부문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 10가지 혁신기법을 간추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 출판물과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수법 10가지에 대해 요약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 자료 및 활동을 결합하여 결속력 있는 학습 경험을 만들어 내는 데 중점을 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교수자들은 상업용 화상회의 플랫폼 덕분에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는 강의 및 세미나 등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더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교수자들이 교과과정의 교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했다.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탐구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학생들이 교실에 출석하거나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이 개인의 경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적 여정을 위한 평생 학습 경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학생들이 더 제한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학생 모두가 수업을 듣고 교사 및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로 구성된 특정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지대하다. 그러나 능동적 학습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수법의 결정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이중학습 시나리오

이중학습은 강의실에서의 교육과 업계의 전문 실무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즉, 교육 현장에 업계의 현실을 접목하고 직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이론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발전이 가속화된 네트워크 기술 덕분에 전 세계에서 업무 형태가 바뀌었으며, 집이 학습과 업무 모두를 위한 ‘제3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이중학습 협력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때때로 학교 교육을 통해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업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생산 프로세스, 작업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또한 업계 파트너는 교실에서 교육할 실습 활동을 제안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할당하고, 대학 및 기타 교육 센터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학계와 업계의 협력자들이 더 긴밀하게 통합된 접근방식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면 이중학습 시나리오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취업 후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예상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더 충실하게 준비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원격으로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발전된 네트워크 기술이 실무 관행에 적용되면 해결될 수 있다.

3 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사회, 기술, 경제 및 기타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지난 십 년 사이에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인증 제도인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부상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집중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배지, 수료증, 학점 또는 전문성 크레딧 등을 받아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기 학습 형태이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주요 초점은 취업에 맞춰져 있다.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학습자에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이크로 자격인증 학습자는 고용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공부보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우선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 자격인증은 학습 기간, 수준, 규모,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모든 조건에 적합한 만능 교수법은 없지만, 기술 결합을 위한 e포트폴리오, 역량 기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 대화식 학습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이크로 자격인증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이 처음인 학습자를 고려해야 하며, ‘학습 방법 배우기’ 및 자기조절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새로운 학습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4 자기주도성 교육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면교육에서 원격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교육 시스템과 자원 개발이 포함된다. 자기주도성 교육은 학습은 직업이고, 학습자는 전문가라는 두 가지 개념이 연결된다.

학습자는 자신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학습 경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키우고 필수 조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학습 목표와

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 역량을 개발하려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이를 장려하는 교수자를 만나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술을 익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조절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습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감정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다수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 존재하며, 학습자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더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5 와치 파티

와치 파티(Watch parties)는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특정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 집단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학습자는 국경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즉, 같은 장소에서 접속할 필요 없이 집, 카페나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영상 시청 전, 시청 중 또는 시청 후에 그룹 토론, 메시지 채팅, 학습 과제 링크 등 학습자가 참여하는 학습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면 교육보다 와치 파티에서 더 많은 사회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와치 파티는 정규 교육, 대학 수업, 교육 및 전문성 개발 등 많은 온라인 학습에서 활용된다. 와치 파티는 비공식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일정을 정하여 공식 교과과정에 편입할 수도 있다. 와치 파티는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하며, 점점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 및 미디어 제공업체에서 와치 파티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면 교육 목적으로 영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와치 파티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와치 파티의 걸림돌 중 하나는 인터넷 연결, 특히 연결 속도인데, 다운로드 또는 미리 로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팔로워의 팬층이 두터운 인물을 말한다. 인플루언서는 이미지,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 서비스, 소셜 트렌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다. 청중 중심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팔로워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인플루언서는 마케팅 부문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 교육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며, 팔로워들에게 공식적이고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무료로 교육 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플루언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배울지에 대한 학습자의 결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와 학습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교육 인플루언서가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팔로워들을 이용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한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나 교육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홍보 자체를 중요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이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식적이고 품질이 보장된 온라인 교육 모델을 개선하고 접근과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를 고려하고 있다.

7 가정의 교육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 환경으로서의 ‘가정’과 가정이 지닌 광범위한 교육적, 문화적 관련성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가정의 교육학’의 개념은 가정 환경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인 교수·학습 유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통한 것과 같은 특정 문화적 학습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홈스쿨링’과는 다르다. 가정의 교육학은 공식 교육에서는 매우 드물게 활용되지만, 교수자가 학생들이 가정에서

얻는 지식에 대해 이해하면 학생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관련성 높은 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문화적 관련성이 높은 책을 보면서 비판적 읽기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인종 또는 불공정과 같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가정의 교육학은 교육 규범,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각, 또는 전통적 분리나 문화적 박탈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도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학생들은 집과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얻은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든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의 교육학에 대한 이해는 가정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불편함의 교수법

‘불편함의 교수법’은 학생들이 인종차별, 억압, 사회적 불의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상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기성찰의 과정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성 과정은 불편함(이 교수법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됨)을 유발하는 감정 등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교수법으로 이끌어내는 감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다양하게 가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기존의 선입견에 의문을 제시하고 그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이러한 감정에 대해 집단으로 토론하고 반성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고, 행동도 이에 따라 바뀌게 된다. 이 교수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교에서 비원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주민 보전에 대해 교육할 때 채택되었다. 불편함의 교수법 지지자들은 이러한 교수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 불평등 및 기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더 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믿는다. 감정을 완벽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민감하고 까다로운 주제를 가르치려면 교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지 알아야 한다.

9 웰빙 교육

웰빙 교육은 학습자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증진하는 교육이다.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자기 효능감,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 건강 문제는 전 세계 학생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문제이며, 불안감, 우울감, 자해, 섭식 장애 등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지식 부족,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을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팬데믹 기간에 더 악화되었다. 웰빙 교육은 교육 기관의 모든 측면이 웰빙에 도움이 되고 양호한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대학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웰빙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발생 가능한 장애를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웰빙 교육이 성공하려면 모든 학교/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래 간 교육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고 높은 교육적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10 걷기와 대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이 많아지자 학생들이 집에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났으며, 고립된 학습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화와 걷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교수법을 부활, 적용 또는 고안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실내에서 만날 수 없을 때 산책이나 하이킹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컴퓨터나 TV 앞에 앉아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걷기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분을 개선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단체로 걸으면 마주 보고 있을 때와는 달리 나란히 옆에서 대화할 수 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러 유형의 상호작용을 나누고, 성찰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걷기와 대화는 교육의 여러 측면, 즉 교수법 연구와 비공식 학습에서 심리적, 신체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은 모바일 학습(이동 시에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학습)이 부상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문

열 번째 출간을 축하하며

10년 전, 우리의 존경받는 동료인 Mike Sharples 교수는 교수, 학습 및 평가법을 개선하고자 전 세계의 교육자 및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교수법 혁신에 관한 Open University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이 보고서는 수십만 명이 다운로드했으며, 우리는 올해 열 번째 보고서를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저자들은 100여 개의 교육학적 혁신 기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블로그 게시물, 영상, 웨비나, 워크숍 및 교사 전문성 개발 이벤트 등 많은 채널을 통해 그 내용을 널리 공유했다. 이는 기념할 만한 집단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를 집필하기 위해 매년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The Open University) 교육기술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al Technology)의 여러 저자 팀이 함께 새로운 동향과 혁신을 고려하고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가 연구와 사례에서 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한다. 유사한 아이디어가 이전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경우에는 제안된 혁신법을 다루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일부 혁신법은 오늘날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성이 높거나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Innovating Pedagogy 보고서는 빠른 변화 속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증거, 상식, 명확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조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교사나 학습자가 각각 수업 시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소규모의 혁신과 전 세계 교육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동향에 중점을 둔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이러한 어려운 경험으로 인해 학생의 불안감과 참여 부족과 같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문제의 기저에 있을 수 있는 정신 건강 및 웰빙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학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수년간의 연구 프로젝트와 소속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통해 혁신을 이끌었다. 우리는 2015년부터 미국(2015년), 싱가포르(2016년), 이스라엘(2017년), 노르웨이(2019년), 아일랜드(2020년), 중국(2021년) 등 매년 다른 국가의 파트너와 협력해 왔다. 2022 보고서에서는 스페인 카탈루냐 오픈 유니버시티(The Open University of Catalonia)와 협력했다. 우리와 협력한 오픈 유니버시티는 온라인 교육을 선도해 왔으며, 온라인 교육이 아직까지 낯선 기관도 적지 않다. 온라인 교육 방식이 성공하려면 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교육학적 혁신은 접근성, 적합성 및 경제성 등의 기술을 둘러싼 문제를 고려하고, 새로운 교수법 모델은 학생들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며 교육을 받고 싶어 하거나 이러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의 시작을 돌아보며

2012년 처음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 참여를 원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개방된 방대한 온라인 과정, 단시간 온라인 과정을 제작하는 교육업체, 자격인증 학습, 학습 활동과 환경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등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동향을 보여주었다. 2012년 보고서는 학생들 간의 협력, 학습 커뮤니티 형성, 여러 환경 간의 연결성 등에 기반을 둔 교수법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모든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관련성 높은 주제이다. 각 교육학적 혁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첫 번째 보고서와 그 이후에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영향력은 높음, 중간 또는 낮음으로 예측되었지만, 2012년 보고서에서 언급한 ‘리좀식 학습(Rhizomatic learning)’에 대한 예측은 이상하게도 ‘확실하지 않거나 높을 수 있음’이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출간물에서 리좀식 학습이 디지털 세계의 여러 플랫폼에서 학습자, 자원, 그리고 이들이 생성하는 지식의 새롭고 적응 가능한 네트워크가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제시했다.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혁신이 주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을 예측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 또한 지역 상황과 교육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향일지라도 세계 곳곳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설명하는 교육학적 혁신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은 혁신법이 교수, 학습, 평가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12년 보고서는 “학교, 전문대학(college), 대학(university)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사는 교육 혁신 및 교과과정 개발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2년 보고서 p.7). 많은 교육 환경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어 왔다. 이제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교육과 직업 세계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이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때때로 정부와 고용주가 교육과 훈련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불행히도 학습에 대한 다른 중요한 이유, 예를 들면 개인의 성장, 건강, 또는 학술커뮤니티 활동 등과 같은 것을 등한시하게 한다.

지난 10년간의 주제

지난 10년간의 보고서에 언급된 혁신법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분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이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보고서에서 나온 혁신법을 바탕으로 주제별 분류를 진행했다. 각 주제에는 관련 교육학적 혁신 및 짧은 소제목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 간에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주제 내에 여러 교수법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간된 10편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 다른 표현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교육학의 혁신에 밝은 미래가 도래하기를 희망한다.

1. 타인과의 소통

- 군중 학습 - 많은 사람들이 가진 현지 지식 활용
- 군중으로부터 학습 - 대중을 지식과 견해의 자원으로 활용
- 인본주의적 지식 구축 커뮤니티 - 학습자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리좀식 학습 - 환경조건에 적응하는 자기인식 커뮤니티에 의해 구성된 지식
- 디지털 학문 -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학업 실천
- 언어 학습을 위한 원격 협업 - 협업을 통한 언어 학습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활용
- 와치 파티 -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영상 시청하기

2. 감정

- 감정 분석 - 학생들의 감정 상태에 반응
- 체화 학습 - 학습 지원을 위해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기
- 경이로움을 통한 학습 - 호기심을 유발하고 조사와 발견 촉발하기
- 놀이를 통한 학습 - 학습자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 깊이 있는 공감 -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학습
- 최고의 학습 순간 - 즐겁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긍정적 정신 상태
- 감사의 교육학 - 웰빙과 학습 개선을 위한 태도에 대한 성찰

3. 정의

- 탈식민 학습 - 관점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주기
- 데이터 윤리에 대한 참여 - 디지털 생활 및 학습에 있어서의 윤리적 데이터 활용
- 그룹 간 공감 - 타인의 관점 이해
- 내적 가치를 지닌 학습 - 학생들의 관심을 활용하여 학습에 영감을 주기
- 힙합 기반 교육 - 힙합을 통한 문화 관련 학습
- 사회 정의 교수법 - 삶과 사회에서의 불의에 대처
-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 - 사람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 직면하기
- 스텔스 평가 - 학습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평가
- 형평성 중심 교수법 - 모두를 위한 학습 개선을 위해 보다 공정한 방법 찾기
- 불편함의 교수법 - 학습과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의 감정

4. 학습 자원 제공

- 빅데이터 탐구: 데이터로 생각하기 - 방대한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기
- 학습을 위한 블록체인 - 교육적 평판 저장, 검증, 거래하기
- 개인 기기 가져오기(BYOD) - 학습 효율을 높이고자 학습자는 수업 시 자신의 기기를 사용
- MOOCs -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
- 드론 기반 학습 - 물리적 공간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 학습 분석 - 데이터 기반 학습 활동 및 환경 분석
- 분석을 통한 학습 설계 - 효과적인 학습 설계와 분석을 연결하는 생산적인 주기
-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학습에 대한 준비
- 로봇 활용 학습 - 교사의 자유로운 교수 활동 지원
- 챗봇 활용 교육 - 교육적 대화를 통한 학습 효율성 향상
- 출판사 주도 단기 과정 - 여가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상업용 단기 과정을 만드는 출판사

5. 새로운 학습의 설정

- 시민 탐구 - 탐구 기반 학습과 시민 행동주의의 융합
- 맥락 기반 학습 - 학습 과정 속에서 맥락이 형성 되는 방법
- 지리 학습 - 지리 관련 학습
- 오프라인 네트워크 학습 - 인터넷을 넘어선 네트워크 학습
- 온라인 연구실 - 모두를 위한 연구실 접근
- 거꾸로 교실 - 강의실 안팎의 학습을 혼합
- 가상 스튜디오 - 학습자가 창의적 과정을 함께 개발하는 활동의 중심지
- 원격 연구실에서의 과학 활동을 통한 학습 - 실제 과학 장비에 대한 실험 안내
- 장소 기반 학습 - 학습의 계기가 되는 공간
- 끊임 없는 학습 - 설정, 기술, 활동 전반에 걸친 학습 연결
- 하이브리드 모델 - 학습 유연성 및 기회의 극대화
- 이중학습 시나리오 - 강의실과 산업 현장에서의 학습 연결

6. 사고와 학습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 배움에 대한 학습 - 효과적인 학습자가 되는 방법 학습
- 컴퓨팅 사고력 -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 디자인 사고 -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방법 적용
- 논증을 통한 학습 - 과학적 논증 기술 개발
- 사고의 시각화 - 학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교육
- 개인 탐구 학습 - 협동적 탐구와 능동적 탐구를 통한 학습
- 브리콜라주 -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톱커링
- 문턱(역치) 개념 - 학습을 위한 다루기 힘든 개념과 까다로운 주제
- 생산적 실패 -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경험 활용
- 분산학습 - 몇 분 만에 장기적인 기억 구축
- 과학을 만드는 학습자 - 과학을 만들고 과학자로서 행동하기 위해 자원하기
- 증거 기반 교육 - 연구 기반 증거를 활용한 교육 정보 제공
- 웰빙 교육 - 교수·학습의 모든 측면에서 웰빙 증진

7. 열린 세상에서 학습하기

- 개방형 데이터를 통한 학습 - 개인적으로 관련된 학습을 위해 실제 데이터 사용
- 말뭉치 기반 교육 - 실제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 언어 교수·학습 지원
- 학습인증 배지 - 기술과 성과를 인정받기 위한 개방형 프레임워크
- 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 실무 기술 개발을 위한 인증된 단기 과정
- 개방형 교과서 - 공개적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교과서 채택
- 대규모 개방형 소셜 학습 - 소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무료 온라인 과정
- 학술 출판의 부활 - 새로운 형태의 개방된 학술 출판

8. 일상생활에서 학습하기

- 액션러닝 - 일상에 적용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
- 교차학습 -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연결
- e스포츠 - 가상 게임과의 경쟁을 통한 교수학습
- 미래를 위한 학습 -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의 일과 삶을 위한 준비

- 부수적 학습 - 계획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학습의 활용
- 비디오 게임을 통한 학습 - 학습을 재미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고, 활기를 줄 수 있도록 만들기
-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학습 - 장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 탈진실 사회의 탐색- 21세기를 위한 지식 교육
-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교육 인플루언서를 통한 학습
- 가정의 교육학 - 문화적 학습 공간으로서의 가정 이해하기
- 풍부한 현실-증강 및 가상 현실을 통한 확장된 학습
- 학습자의 교수학습 공동 창작 -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드는 교재와 교과과정
- 걷기와 대화 - 걷기와 대화의 결합을 통한 학습 효과 향상

9. 학습의 개인화

- 적응형 교수법 - 컴퓨터 기반 교수법을 학습자 지식과 행동에 맞게 조정
- 역동적 평가 - 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자 맞춤형 평가를 제공
- 티치백(Teachback) - 배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학습하기
- 트랜스 랭귀지(Translanguage) - 다국어 사용을 통한 학습 강화
- 학생 주도 분석 - 학습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 형성적 분석 - 학습자가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석 개발
- 학습 평가 - 진단 피드백을 통해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평가
- 자율성 교육 - 자유롭고 독립적인 학습을 위한 역량 구축

10. 학습자 참여 유도

- 이벤트 기반 학습 - 시간 제한 학습 이벤트
- 몰입형 학습 - 새로운 상황의 경험을 통한 학습 강화
- 메이커 문화 - 만들기를 통한 학습
- 다중 감각 학습 - 여러 감각을 활용한 학습 향상
-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습 - 기억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 창작
- 게임을 통한 학습 - 학습을 위해 디지털 게임의 이점 활용
- e-book에 대한 새로운 교육학 - 차세대 전자책으로 교수·학습하는 혁신적인 방법
- 애니메이션을 통한 학습 - 짧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상호작용하기

하이브리드 모델

학습 유연성 및 기회의 극대화

서론

2011년에 연구자들은 교육 기술이 학습과 무관하지 않고 학습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대면학습과 비대면 학습을 결합하는 모델이 ‘뉴 노멀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모색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교육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기술이 교육 분야에 신속히 채택되었다. 또한 교육에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 모델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대안적 모델(하이브리드 모델 등)이 광범위하게 구현되면서 보다 유연한 학습 방법 모색, 더 많은 온라인 자원과 학습 기회 창출, 대부분의 직업에서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등에 대한 요구에 응해 왔다.



온라인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무한한 온라인 강의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도전적인 상황과 규모에서의 학습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장소기반 학습과 원격 학습의 발전

학교나 캠퍼스 기반 학습과 원격 학습 간의 전통적인 구분 방식은 수년에 걸쳐 발전해왔다. 하이브리드 접근방식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 자료 및 활동을 결합해 결속력 있는 학습 경험에 중점을 둔다. 기술이 개발되고 유무선 대역폭이 넓어지고, 광섬유 및 모바일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하드웨어 및 연결 서비스 비용이 절감되면서 상호작용과 협업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실시간/비실시간 통신 및 학습의 가능성이 커졌다. 웹상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하고 지리적 제한 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개개인과 기관들은 학생들의 개인적, 직업적, 업무 과제에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경력 개발을 위한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

팬데믹 기간에 교수자들은 Zoom, Teams 등의 상업용 화상 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어렵지 않게 원격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지만, 온라인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무한한 온라인 강의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또한 교수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즉각적으로 증가했다.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많은 공개 온라인 과정들이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퓨처런(FutureLearn)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법: 학생들을 위한 연속성 제공’ 과정은 10만 명이 넘는 수강생의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FutureLearn, MiríadaX 및 FUN(France Université Numérique), 미국의 Coursera 및 EdX, 인도의 SWAYAM 및 중국의 XuetangX와 같은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상했다. 온라인 교육이 대규모로 실시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반드시 교수 및 학습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강의실에서나 집에서나 함께 학습하기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

특히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탐색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과정을 듣는 기간 동안 실시간² 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번갈아 가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실시간 참여는 강의실 수업 시간에 맞춰서 제공될 수도 있고 다른 시간대에 화상 회의 또는 라이브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해진 시간 내에 온라인 포럼이나 채팅을 통해 비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대면 강의실 세션에서는 실시간/비실시간 참여가 결합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참여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유연한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은 학생들이 자신의 선호도와 상황을 우선시하며, 수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학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반면,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이 성공하려면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콘텐츠, 활동 및 경로가 개별 학생에 맞춤화 되는 복잡한 교과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은 학생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의 Hyflex 모델, 네바다 대학교의 Reblflex 모델, 센트럴 조지아 공과대학의 Blendflex 등을 들 수 있다.

선택을 위한 설계

The flexible hybrid model's distinctiveness 베티(Beatty)³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을 보여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학습 속도 또는 선호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자율성이다. 두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해도 비슷한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동등성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전략 및 채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수 자료를 재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학습 참여 방식 및 학습 경로 내에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에 중점을 둔다.

베티의 학습 모델은 공통적이지만 분리된 공간을 연결하는 단일 과정, 즉 단일 커뮤니티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계할 때 반드시 다양한 참여 경로를 지원해야 한다. 베티는 교류하고 협력하는 원격 온라인 학습자와 물리적인 공간을 연결한다. 실시간이라는 개념은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것에 적용된다. 그러나, 유연한 하이브리드

학습은 또한 유의미한 학습 측면에서의 비실시간 학습과 더불어 비실시간 학습이 실시간 학습 이전 또는 이후의 학습 순간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최적의 플랫폼 활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바이크로너스 학습(bichronous learning, 실시간/비실시간 방식의 혼합)⁴⁾ 접근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합 방식은 교육과정에 적용된 학습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더 많은 개인 또는 공동 작업과 더불어 교사 또는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 경험을 촉진한다. 학생들의 출석 시기와 방식은 교육 과정 중에 결정된다.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인 2022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의 케빈 켈리(Kevin Kelly)는 다양한 수업 시간 또는 특정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HyFlex 과정 설계 사례를 수집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50분 수업은 설문조사, 퀴즈, 자기평가 등의 워밍업으로 시작하고 그 후에 강사가 개입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업 중 또는 실시간/비실시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는 미리 녹화된 짧은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교실에서 그룹 토론을 하거나 온라인 포럼을 활용해 온라인 또는 비실시간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새로운 작업이 추가될 수 있고, 강사가 수업을 요약한 후 마무리한다. 온라인을 통해 비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학습자가 실시간 참여하는 학습자와 동등한 경험을 하게 하려면 비실시간 학습자를 위해서 일찍 시작하거나 설문조사 결과 또는 토론에서 나온 추론 등 변동 상황과 관련하여 추후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주요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물리적 공간 마련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여 가르치고 상호작용하려면 대면/비대면으로 동시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게임, 역할극, 도전 기반 학습, 시나리오 기반 학습 등의 학습 활동에 참여하거나 강사 또는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학습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한다. 스트리밍 및 상호작용을 위해 웹캠이 달린 랩탑이나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학습이 가능하겠지만, 대면학습과 비대면학습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로는 화상회의 기술, 교사용 고감도 마이크와 무선 마이크, 강의실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학습관리 시스템, 학생용 및 교사용 컴퓨터, 동영상 스트리밍용 카메라, 수업 발표용 보드 등이 있다.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Florida),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및 샌디에고 대학(University of San Diego)의 교수 및 교육 지원 센터에서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혼합 환경과 관련된 실제 구현 및 유용한 권장 사항에 대한 예제와 동영상 데모를 제공한다.

유연한 하이브리드 학습을 위한 교수법 및 전략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있어 기술은 무척 중요하지만 능동적 학습과 참여⁵⁾를 통한 학생 참여 방법을 결정하는 교수법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출석하게 한다면 단순하게는 학생들이 특정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의도치 않게 바람직하지 않은 대면 수업 출석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수업 전후로 온라인 숙제를 내주는 등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능동적인 학습 전략 사용
-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공유 문서나 의견 개진을 위한 온라인 투표 등 실시간 학습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지식을 함께 쌓기 위한 협업 학습 및 팀워크 촉진
- ‘거꾸로 교실’ 전략을 채택하여 협업, 토론 및 평가를 위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동시성이라는 차별화된 방식을 더 잘 융합하며 비실시간으로 개인 및 그룹 활동을 통해 배경지식과 공동체 의식 구축
-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짧은 영상, 시뮬레이션, 게이미피케이션 및 상호작용 콘텐츠로 풍부한 경험 제공
- 노트 필기, 이벤트 기록, 성찰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 제안
-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포럼이나 공유 글쓰기 공간에서의 의견 작성 및 제안 등과 같은 자체 평가 및 동료 평가 장려

- 프로젝트, 문제, 탐구 기반 학습을 제안해 학습 경로를 더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 장려(예: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학생의 과업 발전 과정을 보여줌)
- 교실 수업 및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해 활용하는 등 학습 자료를 재활용하고 조정해 더 많은 자율 학습 기회 제공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적용에 있어서의 과제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은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 평생 학습 경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학생들이 더 제한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 각 유형의 모델에는 각각의 과제가 있다.

개방형 하이브리드 모델의 문제 - 개인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을 구현하려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형의 과정은 우수한 교육 품질과 진로를 개발하는 데 유리한 선택을 하게 도와주는 등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개방형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또한 독립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포함한 몇 가지 다른 역량들을 개발해야 한다. 자기조절 역량에는 계획, 모니터링, 자기 성찰이 있다. 디지털 역량에는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문해력(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생성하고 검색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다. 제일 중요한 일은 학습자가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을 통해 키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야 개방형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독립적 학습의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문제 - 교사와 교육기관

유연한 하이브리드 학습을 실행하려면 교육기관의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비전, 미션, 전략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에 투자하고 교사를 교육하며 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교사가 실시간/비실시간 교수·

학습에 적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교육과정과 새로운 학습 참여 방식에 적응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결론

팬데믹 기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은 곳에 적용되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효율성과 교사와 학생이 해당 모델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맥락과 해당 모델 구현의 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채택하는지, 더 많은 학생이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또는 학생 유지와 과정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An early article that foresaw widespread adoption of hybrid learning enabled by technology:
Norberg, A., Dziuban, C.D. & Moskal, P.D. (2011). A time-based blended learning model. *On the Horizon*, 19(3): 207-216. Available at: <https://doi.org/10.1108/10748121111163913> (Accessed: 26/02/22).
2. An article presenting state-of-the-art developments in hybrid synchronous learning:
Raes, A., Detienne, L., Windey, I., & Depaepe, F. (2020).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synchronous hybrid learning: Gaps identified.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23(3), 269-290. Available at: <https://doi.org/10.1007/s10984-019-09303-z> (Accessed 14/05/22).
3. A concise practical digital book for flexible hybrid learning design:
Beatty, B. J. (2019). Values and Principles of Hybrid-Flexible Course Design. In B. J. Beatty, Hybrid-Flexible Course Design: Implementing student-directed hybrid classes. EdTech Books. Available at: <https://edtechbooks.org/hyflex> (Accessed: 26/02/22).
4. An article pointing to the relevance and extended opportunities of designing for and connecting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integrated learning:
Martin, F., Polly, D. & Ritzhaupt, A. (September 8, 2020). Bichronous Online Learning: Blending Asynchronous and Synchronous Online Learning. *Educause Review*. Available at: <https://er.educause.edu/articles/2020/9/bichronous-online-learning-blending-asynchronous-and-synchronous-online-learning> (Accessed: 26/02/22).
5. A book about blended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s and the use of virtual and social communication for engagement:
Vaughan, N. D., Cleveland-Innes, M., & Garrison, D. R. (2013). Teaching in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Creating and sustaining communities of inquiry. Athabasca University Press. Available at: <https://www.aupress.ca/books/120229-teaching-in-blended-learning-environments/> (Accessed: 26/02/22).

출처

- A webinar recording with presentation slides on the HyFlex Method with examples:
Brian Beatty (September 9, 2021). How to use the HyFlex Method to Teach Online and In Person at the Same Time. Teachonline.ca by Contact North. Available at: <https://teachonline.ca/webinar/how-use-hyflex-method-teach-online-and-person-same-time-0> (Accessed: 26/02/22).
- Live collaborative document with templates and blueprints of HyFlex courses:
Kevin K. (n/d). HyFlex Course Design Examples.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Available at: <http://tiny.cc/HyFlex-examples> (Accessed: 26/02/22).
- A website dedicated to the RebelFlex model:
RebelFlex. Information Technology.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Available at: <https://www.it.unlv.edu/classroom-technology/rebelflex> (Accessed: 26/02/22).
- A practical guide posing relevant questions and answers around hybrid learning:
Jisc (16 October 2020, updated: 16 August 2021). Scenario four: effective hybrid learning. A positive student experience for students studying both remotely and in person. Digital pedagogy toolkit. Available at: <https://www.jisc.ac.uk/guides/digital-pedagogy-toolkit/scenario-four-effective-hybrid-learning> (Accessed: 26/02/22).
- An article that situates hybrid learning in a long history of blended learning and provides a roadmap for the present and future:
Singh, J., Steele, K., & Singh, L. (2021). Combining the Best of Online and Face-to-Face Learning: Hybrid and Blended Learning Approach for COVID-19, Post Vaccine, & Post-Pandemic World.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Systems*, 50(2): 140–171. Available at: <https://doi.org/10.1177/00472395211047865> (Accessed: 26/02/22).
- Three university teaching support centres in the US presenting hybrid learning infrastructure:
 - University of Florida, Center for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Training: Available at: <https://citt.ufl.edu/resources/teaching-in-a-classroom-with-hyflex/> (Accessed: 26/02/22).
 - Columbia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Available at: <https://ctl.columbia.edu/resources-and-technology/teaching-with-technology/teaching-online/hyflex/> (Accessed: 26/02/22).
 - University of San Diego,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vailable at: <https://www.sandiego.edu/its/support/classrooms/hybrid-classroom-technology.php> (Accessed: 26/02/22).

이중학습 시나리오

교실과 산업 현장에서의 학습 연결

서론

학생들은 오래전부터 이론과 실제 적용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 교실 학습과 산업 현장 학습을 융합하는 학습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수습생이 훈련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거나, 학부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 산업 현장에 배치되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협력 교육¹, 이중 교육 또는 직업통합학습(WIL)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중학습은 교실 훈련과 산업에서의 전문적인 실행 사이의 밀접한 동기화의 가치를 인지한다: 즉, 교실에 실무 수행을 가져오고, 업무 현장에는 실행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이해를 가져다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네트워크 기술로 인해 전 세계의 업무 형태가 바뀌었고, 학습과 업무를 위한 제3의 장소로서 학생의 집을 포함하는 작업 공간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교육학적 관행과 기술 발전의 혁신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중학습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학습을 마친 학생들은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높은 유연성과 취업 가능성을 통해 혁신을 이끌 수 있다².

전통적인 방식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습의 두 영역인 교실과 작업 환경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 동안 학습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중학습

산업계의 수요와 교실 수업의 조정

이중학습 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계 파트너들이 교실 수업이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무 역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 및 기술 습득 능력은 산업 현장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즉, 지식, 역량, 기술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반면, 교실 교육은 주제별로 구성된 개별 학습에 중점을 둔다. 한편 교수자는 학교나 대학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에서 사용되는 생산 프로세스, 작업 절차 및 기법과 기술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은 업계 파트너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실습 활동을 제안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파트너는 대학과 기타 교육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 또는 부서를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

업계 요구에 부응하고 업계 파트너의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스페인 Catalonia 오픈 유니버시티의 직업훈련 부서는 교육 모델과 교과 과정을 변경했다:

1. 기존 모듈 기반 ‘역량학습’ 구조는 그룹 또는 개인별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하는 법을 아는 학습’ 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변경한다.
2. 수행된 프로젝트는 실제 업계에서 겪는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재고, 수익, 비용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기업의 창고에 있는 상품들을 분석하고 관리한다.
3.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기업 권장 사항을 염두에 둔다.
4.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 평가는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감독, 교직원, 부하 직원, 동료 및 학생이 피드백을 주는 프로세스이다. 360도 피드백에는 프로세스, 기술 및 지식(주제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제적 이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5. 해당 모델은 학생 중심이므로, 학생들은 실제 과정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협동 학습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 그룹과 함께 진행된다. 그룹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과제를 나누어 주고, 공동으로 작업을 검토하며 프로젝트에서 공동 프레젠테이션을 고안한다.

고등교육의 과제는 학제 간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론적, 교육학적, 기술적 도구를 찾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교육 모델에 함께할 강사를 적절히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⁴.

둘째로, 대학 학습 활동 속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장비를 사용해 보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무 사례를 실제 기업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 업무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가상 도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격 학습 공간(예: 집이나 카페)이 전문적인 실습 공간이 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훈련시키는 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을 예로 들면, 학생들이 실제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네트워킹 장치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론적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킹 장치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와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을 웹 기반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평가하며 업데이트할 수 있다⁵.

이와 유사하게 엔지니어링 및 과학 실험실 기술은 원격 또는 가상 실험실을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데, 이는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가 OpenSTEM Labs에서 탐구한 접근 방식이다⁶. 학생들은 인터넷만 있으면 실제 작업 실험실 장비와 실험을 경험할 수 있다.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

이중학습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진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모든 학습 환경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직장에서는 신입 직원의 업무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교사가 원격으로 학생의 학습 진행상황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는 더 어렵다. 더욱이 학교와 직장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이중학습은 이러한 평가 프로세스를 조율하고 업계와 교육 분야의 평가자가 어디서나 학생의 학습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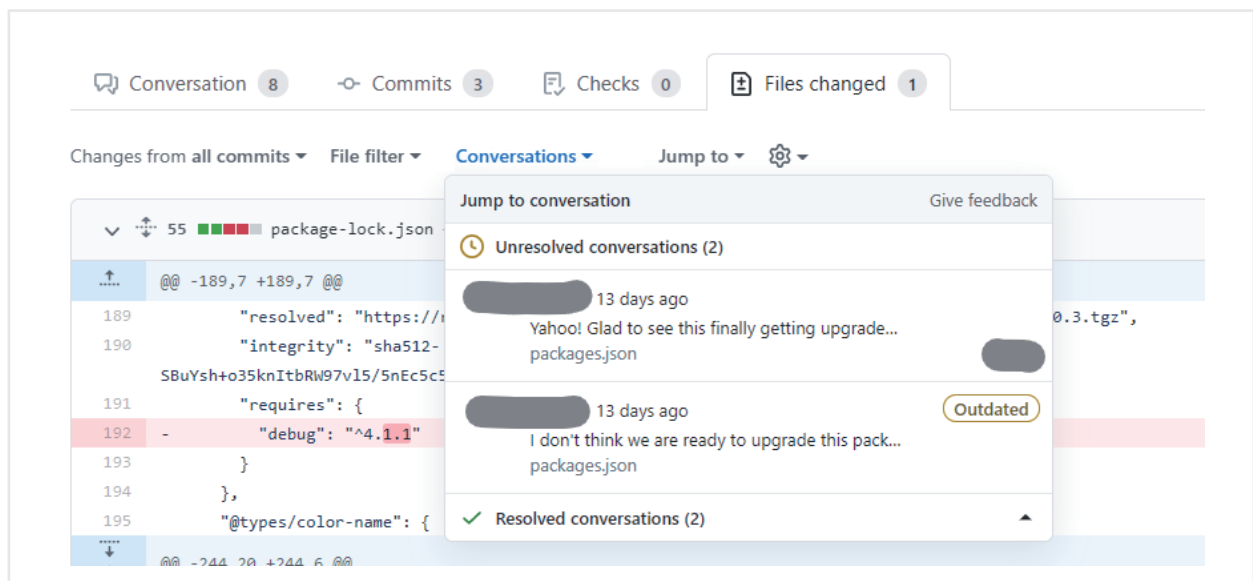


교사가 원격으로
학생들의 학습 진행상황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더 어렵다.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 학습 진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GitHub는 코드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오픈 소스 도구이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용자가 볼 수 있어, 업계와 학계 강사로서의 역할도 한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으면 학습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작업을 평가해 코멘트나 피드백을 남길 수 있다.

5G와 같은 새로운 연결 기술은 직장에서 학생들의 실시간 원격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증강현실(AR) 등의 기술과 원격장비 모니터링을 결합하면 교사나 튜터가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수행한 과업과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복잡한 학습 분석(학생의 행동 및 진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보고)도 할 수 있게 된다.



튜터가 코멘트로 남긴 코드를 보여주는 GitHub 스크린샷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훈련생은 AR 안경을 착용해 항공기 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완료된 세팅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치는 데이터를 전송해 강사는 원격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 AR 도구로 학생들의 행동을 기록해 강사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강사와 토론할 수 있어 자기반성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고도의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AR 안경을 착용하면 외과 수술의 실시간 원격 감독이 가능해, 다른 곳에 위치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⁷.

그러나 대학 및 직장에서 학생들과 그들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상업적 민감성과 개인정보보호 등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e포트폴리오(학생 학습 결과물을 디지털로 수집)와 같이 기존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만, 사례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이 주도하는 포트폴리오 시스템 내에서 사진과 영상을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와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힘과 통제권이 학생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은 무엇을 기록할 수 있고 또는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논제에 능동적인 파트너로서 참여한다. 노르웨이 직업 교육 및 훈련(VET) 시스템은 선구적으로 e포트폴리오를 견습생, 훈련 사무소, 학교 및 회사 간 연결 장치로 활용해 학습 공간을 연결하고 학계, 학생, 고용주 관계를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학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⁸.

결론

이중학습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통합된 접근방식을 적용해 학계 및 산업계 협력자가 원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중학습 시나리오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에서 마주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업계에는 더 충실하게 준비된 인재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이중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을 결합한 단일 학습 전략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교수설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1. A journal article explaining how policing has been developed into a 'work-integrated learning ecosystem' in the context of Australian higher education:
Fergusson, L., Van der Laan, L., Imran, S., & Ormsby, G. (2021). The development of work-integrated learning ecosystems: an Australian example of cooperativ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Work-Integrated Learning*, 22(1) pp. 25–40. Available at: https://www.ijwil.org/files/IJWIL_22_1_25_40.pdf (Accessed: 21/03/22).
2. A discussion paper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ontext of Switzerland and Germany:
Backes-Gellner, U., & Lehnert, P. (2021). The contribu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innovation and growth. Working paper no. 177. Universität Zürich and Universität Bern. Available at: http://repec.business.uzh.ch/RePEc/iso/leadinghouse/0177_lhwpaper.pdf (Accessed: 21/03/22).
3. A website from an organisation in California which explains project-based learning and offers a range of services and resources:
PBLWorks –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n.d.). *What is Project Based Learning (PBL)?* Available at: <https://www.pblworks.org/what-is-pbl> (Accessed: 21/03/22).
4. An academic journal article exploring interdisciplinarity in project-based learning at organizational, team and individual levels:
Braßler, M. (2020). The Role of Interdisciplinarity in Bringing PBL to traditional Universities.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roblem-based Learning*, 14(2). Available at: <https://scholarworks.iu.edu/journals/index.php/ijpbl/article/view/28799/35711> (Accessed: 21/03/22).
5. An academic journal article describing a virtual networking laboratory used at the Open University of Catalonia:
Prieto-Blázquez, J., Arnedo-Moreno, J., & Herrera-Joancomartí, J. (2008). An Integrated Structure for a Virtual Networking Laboratory.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55(6): pp. 2334–2342. Available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19967_An_Integrated_Structure_for_a_Virtual_Networking_Laboratory (Accessed: 21/03/22).
6. A website showcasing The Open University's OpenSTEM labs, which connect students to instrumentation, data and equipment for practical science enquiries over the internet:
The Open University (n.d.) The OpenSTEM Labs. Available at: <https://stem.open.ac.uk/study/openstem-labs> (Accessed: 21/03/22).
7. A brief web guide to the ways in which 5G and other networked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healthcare, include training and education:
STL Partners (n.d.) '10 5G Healthcare use cases transforming digital health'. Available at: <https://stlpartners.com/articles/digital-health/10-5g-healthcare-use-cases/> (Accessed: 21/03/22).
8. Lahn, L.C., & Nore, H. (2018). ePortfolios as Hybrid Learning Arena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tegr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periences* 29(1): pp. 207–226. Available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5852111_ePortfolios_as_Hybrid_Learning_Arenas_in_Vocational_Education_and_Training (Accessed: 21/03/22).

출처

- A guide for employers and education providers to support trainers and teachers to work across both domains:
The Dual Professional Toolkit: A guide for those looking to move towards dual professionalism. Available at: https://www.et-foundation.co.uk/wp-content/uploads/2020/04/Dual-Professional-toolkit_2.pdf (Accessed: 21/03/22).
- A report which explores innovations in dual learning both in terms of pedagogy and technology innovations:
Innovation and Digitalisation: A report from the ET2020 Working Group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vailable at: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738&langId=en&pubId=8365&furtherPubs=yes>
- A centre to promote excellence in primary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increase children's and teachers' awareness of STEM careers and industries, and raise children's science capital:
Centre for Industry Education Collaboration. Available at: <https://www.york.ac.uk/ciec/> (Accessed: 16/05/22).
- An explanation of online engineering laboratories to give students practical training in industry skills, by The Open University of Catalonia:
"How do you do engineering experiments using complex equipment?"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2mAxYz7Vb0> (Accessed: 16/05/22).
- The ARETE project: exploring how Augmented Reality tools might support industrial training and evaluation: Available at: <https://www.areteproject.eu/newsevents/body.612155.en.html> (Accessed: 16/05/22).
- A guide to e-portfolios that "answers many questions you may have, from the academic benefits of portfolios, the platform to use, to ongoing management, and how to get started":
The Complete Guide to Student Digital Portfolios: Available at: <https://campuspress.com/student-digital-portfolios-guide/> (Accessed: 16/05/22).

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실무 역량 개발을 위한 인증된 단기 과정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새로운 유형의 자격인증이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교수·학습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하나는 경력, 직장 및 전문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새로운 학습자 그룹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학습자들은 다른 형태의 교육이나 훈련에 등록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아 학습 기술을 배워야 하는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에 대한 접근 방식

사회, 기술, 경제 및 기타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지난 십 년 사이에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인증 제도인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부상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집중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배지, 수료증, 학점 또는 전문성 크레딧 등을 받아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기 학습 형태이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주요 초점은 취업에 맞춰져 있다.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학습자에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장에서 활용될 기술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교과 과정,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현존하는 교육 및 전문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보고서가 많이 발간되었다^{1,2,3}.

이러한 보고서는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기존의 자격 프레임워크를 이어준다. 예를 들면,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⁴는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유럽 학점 이수 시스템(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ECTS)을 연계했다.

- ECTS 1~5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크리덴셜 모듈은 정식 교육의 일부이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 또는 기타 학문적 전문성 개발 과정을 수료할 때 공식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여된다.
- ECTS 5~30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크리덴셜 단기 학습 프로그램은 기술을 자격 프레임워크에 매핑할 수 있는 상호 연계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은 기술, 특히 산업 프레임워크와 지역 또는 국제 자격 프레임워크에 대해 벤치마킹된 ‘고용 가능 기술’을 공인한다. 증거 기반 평가는 이러한 기술을 인정하고 수여하는 데 활용된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문적, 업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익힌 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을 습득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평가를 위해 제출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디킨 대학(Deakin University)의 전문 실무 크리덴셜⁵은 이러한 기술 중심 경로를 따라 자기관리, 문제해결 능력 및 혁신과 같이 고용역량에 관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발급한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국가 교육 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⁶는 현재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 과정과 관련된 175여 개의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격증은 특정 영역의 기술 숙달에 대해 수여된다. 동아프리카⁷의 EPICA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니셔티브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학의 커리큘럼 내에서 프레임을 구성하고, 학습을 업무 경험과 연결하고, 학업 성과에 대해 인정해주는 기술 배지를 발행하여 졸업장을 보완한다.



실무 역량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전 세계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특별한 이유

과거에도 많은 고등교육 과정이 직업과 연계되었지만, 주로 전일제 교육에서 전일제 고용으로 전환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학생들이 가지는 제각기 다른 상황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학습자가 직업 경험이 전무하고 양육이나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무하는 동안 주로 공부에 중점을 둘 것이라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는 이러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공부보다 가족 돌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교수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

경력, 직장 및 전문 역량에 중점을 둔다.

- 학습자는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얻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 많은 학습자들이 학습보다 우선시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유연한 학습 스케줄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온라인 학습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는 온라인 학습 관련 기술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 학습자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면 소속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 학습자가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경우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할 수 있다.
- 학습자 국적이 각각 다를 수 있어 교수학습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 온라인 학습은 대면학습보다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학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정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참여하는 수가 많을 수 있다.
- 참여자가 많으면 학습자에 비해 교수자의 비율이 낮을 수 있다.
- 학습자는 더 많은 자격 증명을 얻기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축적’하기를 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활용

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학습 시간, 수준, 규모 및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건에 적합한 만능 교육은 없다. 대신, 위에 언급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역량 결합을 위한 e포트폴리오

역량을 명확히 하고 증명하는 과정은 탐구에서 시작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현재와 과거 경험을 돌아보고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역량을 적용한 상황을 식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얻은 통찰력으로 습득한 역량을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과정과 직장에서 얻은 경험을 한데 모아 학문적 학습과 실제 경험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역량의 사례는 e-포트폴리오(학생들의 완성된 작업 또는 성과의 디지털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학문 및 전문적 맥락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다양한 채널, 형식, 스타일을 활용해 교사 및 고용주를 포함한 다양한 청중과 자신의 역량에 대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다. e-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다양한 청중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역량 개발과 관련된 증명을 확인하고 선정한 다음, 학업 평가(특정 기술을 습득했음을 보여주기 위함) 및 전문성 인정(전문 기관에 입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보여줌)에 활용할 수 있다.

역량 기반 학습

역량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측정 가능한 성과를 얻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잘 짜여진 경력 경로를 따라 숙달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에 적합하다. 숙달도는 학습자가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역량을 습득했음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직장 등 실제 상황에서 해당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도 평가 대상이 된다. 학습자는 한 과정 속에서 가르쳤거나 여러 개의 마이크로 크리덴셜로 쪼개진 필수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없다.

이 접근 방식은 이미 명시된 역량이 있는 영역에서 가장 구현하기 쉽다. 역량 기반 학습은 팀워크 기술, 의사소통 능력, 압박을 견디고 일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과 연계되어야 한다. 평가는 다양한 역량을 연결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가진 역량들을 별개로 보지 않고 그들 사이의 연결성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사례 기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직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에 매우 적합하다. 사례 기반 학습은 실제 사례,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질문, 측정된 성과가 분명한 학습 목표를 포함하는 가이드식 탐구의 형태를 취한다.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과정 중에 제공되고, 학생들이 별도로 찾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진행자는 가이드 질문을 던져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근무 환경과 연결된다. 학습자는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때와,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할 때를 알게 된다.

학습자는 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룹 계획 세우기, 일정 짜기, 지식 공유하기와 같은 팀워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미 비즈니스나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국적 학습자 그룹은 공유할 만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팀과 협력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내용 지식의 습득만큼 그들의 발전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환경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성찰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반대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지식의 차이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온라인 환경에서 이를 달성하려면 활동 체계, 그룹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 교수자의 적절한 행동 모델, 입문 수업을 위한 사려 깊은 사용법, 그룹 과정과 상호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화식 학습

MOOC 플랫폼에서 시행되는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대화식 학습은 수백 또는 수천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⁸.

대화식으로 학습하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동영상 시청, 지문 읽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대화식 학습에는 대화, 협업, 자아 성찰, 실험 및 아이디어 실현이 포함된다. 학습자들은 강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과 연관시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도 한다. 강의 활동에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하며, 가능한 경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포함된다.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학습자는 강의에서 소개된 이론과 기술을 자신의 실제 경험에 대입하여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

대화식 학습 방식은 규모가 클수록 더 효율적이다. 비실시간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때와 학습자의 기존 지식을 활용할 때 더 효율적이며,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이해도가 떨어질 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화식 학습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때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위해서는 학습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학습자 역량 개발

대학은 학기 시작 전 학생들과 교직원이 비공식적으로 만나게 하고 새로운 환경을 모색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자원을 찾게 해 주는 등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는 몇 주간 해야 할 공부를 계획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처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 따라서 강의 시작 시 시간을 따로 두거나 강의 시작 전에 선택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강의 전 시간에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 개발, 일기 및 노트 작성, 비판적 사고하기, 과제 준비와 평가 정정과 관련된 조언 등을 통해 학습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이 처음인 학습자들은 도움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학습자는 특정 플랫폼을 활용하고 강의를 탐색하는 방법과 관련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온라인 학습자는 강의와 그들의 사전 경험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설정. 한 가지 목표는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완료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하나 이상의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거나, 특정 분야의 경험을 얻거나, 다른 실무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명확히 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시간 관리. 대부분의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는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시작 전에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중요한 강의 날짜를 기입하고 정기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며, 변경할 수 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진도를 따라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공간. 공부할 공간이 있는 학습자도 있겠지만 시끄럽지 않으면서 공부하기 적합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습자도 있다. 인터넷 잘 연결되지 않으면 학습자가 수업자료를 미리 다운로드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이 연결될 때마다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지원.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거나 ‘스터디 파트너’를 정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는 재직 중인 회사가 그들의 그룹을 동일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에 등록한 경우 직장에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거나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노트 필기. 온라인 학습자는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온라인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직접 필기하면서 온라인으로 메모하는 방법을 선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선호도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공부하지만 직장 컴퓨터로 메모했거나, 온라인으로 메모했지만 공부하는 동안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자기조절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체계와 자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원격으로 공부할 경우 강의 레벨이 어떻든 간에, 학습자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이를 위해 자기조절 또는 ‘학습 방법 배우기’와 관련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 학습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
- 시간 관리
- 목표의 설정
-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함께 배울 유용한 자원 찾기
- 학습 전략 선택
- 진행 상황에 대한 성찰
-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자기조절이 우수한 학습자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경력, 직업, 개인적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다. 그들은 자신의 학습을 통제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학습을 통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학습 과정의 핵심 과제뿐만 아니라 추가 자료를 검색하고 포럼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학습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

이러한 모든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마이크로 크리덴셜 과정의 목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당 능력들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학습 방법을 익히는 역량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학습자가 자신의 장점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들이 학습성과에 있어서의 학습 기술을 언급하고, 강의 내에 이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며, 역량 습득을 입증한 학습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역량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학습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기존 교수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하고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수·학습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들의 요구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전일제 학습자들의 요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교수·학습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1. European project report which provides a definition of microcredentials and how they can be related to existing European policies and frameworks:
MICROBOL (2020) Micro-credentials Linked to the Bologna Key Commitments: Desk Research Report. Available at: <https://eua.eu/resources/publications/940:micro-credentials-linked-to-the-bologna-key-commitments.html> (Accessed: 16/05/22).
2. Roadmap for a national microcredential strategy, drawing on a nationwide survey of employers and employees:
Nic Giolla Mhichíl, M., Brown, M., Beirne, E., & Mac Lochlainne, C. (2021). A Micro-Credential Roadmap: Currency, Cohesion and Consistency. Skillnet Ireland. Available at: <https://www.skillnetireland.ie/publication/a-micro-credential-roadmap-currency-cohesion-and-consistency/> (Accessed: 16/05/22).
3. Report recommending immediate next steps to make microcredentials work – or work better – by building trust, adding value and achieving sustainability:
Oliver, B. (2019) Making Micro-credentials Work for Learners, Employers and Providers. *ResearchGate*. Available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5109512_Making_micro-credentials_work_for_learners_employers_and_providers (Accessed: 16/05/22).
4.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hort learning programmes within higher education at an institutional level, including links to useful tools:
Hudak, R., & Camilleri, A. F. (2018). The Micro-Credential Users' Guide. *MicroHE Consortium*. Available at: https://microcredentials.eu/wp-content/uploads/sites/20/2021/05/D3_3_MicroHE-Users-Guide.pdf (Accessed: 16/05/22).
5. Initiative for the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professional practice credentials:
Deakin University (n.d.). *Professional Practice credentials*. Available at: <https://credentials.deakin.edu.au/> (Accessed: 16/05/22).
6. Microcredentials offered by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 the USA, providing educators with flexible professional learning opportunities and recognitio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d.). *Micro-Credentials*. Available at: <https://www.nea.org/professional-excellence/professional-learning/micro-credentials> (Accessed: 16/05/22).
7. Research article showcasing an approach to recognising employability skills in university programmes:
Maina, M.F., Guàrdia Ortiz, L., Mancini, F., & Martinez-Melo, M. (2022). A micro-credentialing methodology for improved recognition of HE employability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19 (10). Available at: <https://doi.org/10.1186/s41239-021-00315-5> (Accessed: 16/05/22).
8. Detailed introduction to conversational learning:
Sharples, M., & Ferguson, R. (2019). Pedagogy-informed design of conversational learning at scale. Paper presented at ECTEL, Delft, NL [16–19 September]. Available at: <http://oro.open.ac.uk/62493/> (Accessed: 16/05/22).
9. Research paper examining the goal-setting, self-efficacy, learning strategies, and help-seeking behaviours of professionals studying a short online course:
Milligan, C., & Littlejohn, A. (2016). How health professionals regulate their learning in massive open online courses.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31, pp. 113–121. Available at: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096751616300483> (Accessed: 16/05/22).

출처

- Curated and regularly updated collection of major reports, policy initiatives and research-related publications on the growth of microcredentials in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Micro-credential observatory. National Institute for Digital Learning and the European Consortium of Innovative Universities. Available at: <https://www.dcu.ie/nidl/micro-credential-observatory> (Accessed: 16/05/22).
- Open international network dedicated to cultivat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esign, development, delivery, and effectiveness of microcredential opportunities:
Microcredentials Sans Frontières. Available at: <http://www.microcredentialssf.org/> (Accessed: 16/05/22).
- Videos of a three-day European event discussing microcredentials:
Day 1 of 'Implementing Micro-credentials in Continuing Education' (November 16, 2021). Empower Webinar Week, EADTU.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aukWTwNiR9w&ab_channel=EADTU (Accessed: 16/05/22).

자기주도성 교육

자율성과 독립적인 학습을 위한 역량 강화

서론

2014 *Innovating Pedagogy* 보고서에서 ‘학습 방법 배우기’를 언급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관련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기주도 학습에는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세워서 얻게 되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교육 시스템과 자원 개발이 포함된다. 자기주도 학습은 틀에 박힌 교과 과정으로 학습자를 제한하지 않고 학습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학습 활동과 교수 활동을 조정한다¹. 교사와 학습 설계자는 이러한 기술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장려해 학생들이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준다.

학습자의 전문성 개발

학습자 전문성 개발은 두 가지 아이디어와 관련된 접근법이다.

(i) 학습은 직업이고, (ii) 학습자는 전문가이다. 학습자의 자율성은 초등학교에서 전문 및 대학원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강화될 수 있다. 학습자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학습 경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키우며 필수 조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학습 목표와 달성 방법을 정하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 기술을 개발하려면 학습자들은 자율성 교육을 촉진하고 시행하는 교수자를 필요로 한다.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고 학습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또래 학습

자기조절 및 학습 전략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². 좋은 학습자가 되는 기술은 타고난 재능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필요한 역량이 자동으로 생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사실, 자기조절 능력은 어릴 때부터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다.

자기조절 능력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감정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좌절이나 흥분과 같은 감정을 조절하고 과제에 집중하며 새로운 과제에 다시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자기조절 학습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메타인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기
- **시간 관리:**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원에 대한 접근, 마감일, 강의 및 외부 약속 등 정해진 일들을 고려해 시간표를 정하기
- **노력조절:** 학습 내용과 활동이 어렵거나 좌절감을 주는 경우에도 노력을 지속하면서 모니터링하기
- **또래 학습:**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하기
- **정교화:** 새로운 자료와 예전에 얻은 교훈이나 경험을 연결하기
- **리허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자료를 반복해서 보기
- **구조화:** 전문지식, 자원 및 학습 자료 이용 일정 수립하기
- **비판적 사고:** 정보에 입각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의견을 구해 평가하며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자기조절 능력은

어릴 때부터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면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습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3,4} 이러한 전략은 학습 자원 선택, 상호작용 설계, 평가 사례 개발 또는 학습 분석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학습 및 교육 전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다. 일부 저자는 이러한 전략을 과정 설계 및 구현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⁵. 또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에는 시간표 작성, 계획, 시간 관리 및 자아 성찰을 도와주는 웹사이트와 앱이 포함된다.

자기조절 학습을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전략을 세우는 방법과 함께 제공하면 학습자들은 더 자신감 있고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갑자기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습자는 온라인에서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해 직장에서 인정받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학습 생태학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학습 생태학’을 가지고 있다. 학습 생태학이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및 가상 환경에서 활동, 자원, 관계를 포함하는 배경을 의미한다. 평생학습 생태학 관련 최신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학습을 위해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 및 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선택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⁶. 학습자가 자신만의 학습 생태계를 잘 인식할수록 학습 능력과 자율성은 더 강화된다. 자율 교수법은 자기조절 전략을 활용하는 이점과 함께 무엇이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강조한다.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자기주도성과 그에 수반되는 것

자기주도성 교육은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주도성 교육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 전략, 자신감을 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습자의 회복력을 도와 학습자가 학습을 막는 장애 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지원해 준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래의 5가지 요소는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1. 참여:** 학습자가 경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율성은 강화될 수 없다.
- 2. 탐색:** 학습자가 탐구하는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며 실제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 3. 개인화:** 학습자는 자신이 공부하는 주제와 자신이 정한 과제에서 개인적으로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 4. 자기성찰:** 학습자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며 향후 학습을 위해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 5. 지원:** 학습자는 혼자 배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교사의 지원이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이다.

이렇듯 교사의 지원적 역할은 학습자가 학습 경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율 학습의 문제와 장벽

학습자의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론과 학습 설계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 지식 전달에만 그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으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의식 접근방식은 시간 관리,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등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기보다 특정 분야의 지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학습자가 교사나 멘토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하게 되면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결론

자기주도성 교육은 학습자를 위한 충분한 지침과 도구를 통합해 학습자가 자기조절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기주도성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실을 학습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 본다. 또한 개인적 교수 접근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의 역량을 키우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생태계를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참고자료

1. An academic article focusing on the pedagogy of learner autonomy and reporting on insights gained from a career spent exploring learners' efforts to learn a language:
Cotterall, S. (2017). The pedagogy of learner autonomy: Lessons from the classroom. *Studies in Self-Access Learning Journal*, 8(2), pp. 102–115. Available at: <https://sisaljournal.org/archives/jun2017/cotterall/> (Accessed 18/05/22).
2. An academic article comparing learner autonomy with self-regulated learning and examining the implications for practice:
Murray, G. (2014). The social dimensions of learner autonomy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udies in Self-Access Learning Journal*, 5(4), pp. 320–341. Available at: <http://sisaljournal.org/archives/dec14/murray> (Accessed 18/05/22).
3. A review of twelve studies showing that strategies of time management, metacognition, effort regulation and critical thinking were associated with good academic outcomes:
Broadbent, J., & Poon, W.L. (2015).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 academic achievement in online higher education learning environments: A systematic review.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7, pp. 1–13. Available at: <http://dx.doi.org/10.1016/j.iheduc.2015.04.007> (Accessed 18/05/22).
4. Examination of ways in which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can help with digital learning:
Anthonysamy, L., Koo, A.C., & He, S.H. (2020).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higher education: Fostering digital literacy for sustainable lifelong learn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5, pp. 2393–2414. Available at: <https://doi.org/10.1007/s10639-020-10201-8> (Accessed 18/05/22).
5. An article with useful strategies for autonomous learning, including asking students to consider how they learn online, monitoring engagement and supporting families:
Carter, R.A., Rice, M., Yang, S., & Jackson, H.A. (2020). Self-regulated learning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strategies for remote learning. *Information and Learning Sciences*, 121(5/6), pp. 321–329. Available at: <https://doi.org/10.1108/ILS-04-2020-0114> (Accessed 18/05/22).
6. An article about learning ecologies and the advantages of raising learners' awareness of their own learning ecologies:
Sangrà, A., Raffaghelli, J., & Guitert, M. (2019). Learning ecologies through a lens: Ontological, methodological and applicative issu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BJET)*, 50(4), pp. 1619–1638. Available at: <https://doi.org/10.1111/bjet.12795> (Accessed 18/05/22).

출처

- Core competences for learner autonomy:
How to develop learner autonomy. University of Amsterdam. Available at: <https://www.itta.uva.nl/learnerautonomy/how-to-develop-learner-autonomy-59> (Accessed 18/05/22).
- Techniques to foster independence and show students how to help themselves and their peers understand and complete tasks, from Edutopia:
Six strategies for promoting student autonomy. Available at: <https://www.edutopia.org/article/6-strategies-promoting-student-autonomy> (Accessed 18/05/22).
- Ways of encouraging learner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and be more autonomous, from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Alex Warren (21 November 2019). Encouraging learning autonomy. Available at: <https://infocus.eltngl.com/2019/11/21/enouraging-learner-autonomy/> (Accessed 18/05/22).
- Tips on becoming an autonomy-supporting teacher, from The Education Hub:
How to support student autonomy and enhance motivation. Available at: <https://theeducationhub.org.nz/how-to-support-student-autonomy-and-enhance-motivation-2/> (Accessed 18/05/22).
- A video-recorded discussion of ways in which digital tools can be used to increase learners' autonomy in the classroom, from Cambridge Assessment:
Using digital tools to encourage learner autonomy in the classroom.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vTnkwoqP2ho> (Accessed 18/05/22).
- Introduction to learning ecologies by the National Science Teaching Association (NSTA) in the US, including suggestions for designing learning opportunities to take these ecologies into account:
STEM Learning Ecologies: Relevant, Responsive and Connected. Available at: <https://www.nsta.org/connected-science-learning/connected-science-learning-march-2016/stem-learning-ecologies> (Accessed 18/05/22).
- The work of the Brazilian educator and philosopher Paulo Freire, who believed that developing learners' autonomy is equivalent to developing learners' freedom:
Freire, P. (1996). *Pedagogy of Autonomy: Necessary Knowledge for Educational Practice*. Paz e Terra, Sao Paulo.
Freire, P. (1998). *Pedagogy of Freedom: Ethics, Democracy and Civic Courage*. Translated by Patrick Clark. Roman and Littlefield, New York.

와치 파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영상 시청하기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영상 발표를 시청하고 논의하기

서론

사람들이 동시에 동영상이나 온라인 발표를 볼 때 와치 파티가 열린다.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참가자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파티’라는 단어는 종종 음식, 음료가 제공되고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행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교모임을 말한다. 와치 파티에서는 사교모임은 있지만 다과는 없을 수 있다. 대신 학습자들의 경험 공유와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중점을 둔다.

많은 학습자들이 학급 전체가 TV 주위에 모여 교육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을 때 학교에서 와치 파티를 경험했을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와치 파티는 온라인으로 시청 가능하고 다른 공간, 심지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동시에 같은 미디어(예: 동영상)를 시청한다. 동영상은 특히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 또는 칸 아카데미와 같은 플랫폼 등의 온라인 과정에서 많이 활용된다.

학습자가 특정 동영상 또는 방송에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와치 파티는 화제가 되고 있다. 그룹 토론, 메시지 기반 대화나 특정 학습 과제에 대한 링크(예: 이해 활동 또는 성찰적 글) 등 학습자들은 와치 파티 전, 도중 또는 이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와치 파티 준비 및 운영

와치 파티는 온라인 학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규 학교 교육이나 대학 수업 또는 훈련 및 전문성 개발 등이 포함된다. 2018년 ‘와치 파티’를 출시한 메타(Meta, 페이스북의 새 이름)가 페이스북 사용자가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와치 파티를 열 수 있는²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와치 파티는 친목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텔레파티 사용, <https://www.teleparty>), 디즈니플러스(그룹와치, <http://www.disneyplus.com/welcome/groupwatch>), 아마존(프라임비디오 와치 파티, <https://www.amazon.com/adlp/watchparty>)과 같은 미디어 제공업체도 와치 파티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많은 온라인 서비스와 미디어 제공업체들의 성장 영역이 되고 있다.



대면교육보다 와치 파티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미디어 제공업체와 무관하게 와치 파티를 제공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다. Zoom, Teams, 그리고 더 최신 플랫폼인 Twitch(<https://www.twitch.tv>)와 Discord(<https://discord.com>)도 와치 파티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며, 와치 파티의 이점은 실시간/비실시간 교육 방식을 결합한 '와치 파티 강의'의 개념을 제시한 Kuepper-Tetzel과 Nordmann³의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식 교육과정의 일부로 계획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연구에서, 각 강의마다 2~3개의 짧은 동영상을 녹화하고 총 45분 정도로 제작하여 대학의 가상학습환경(VLE)에 업로드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비디오를 시청할 시간을 설정해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정해진 시청 시간을 따랐다.

또한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어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으며,⁴ 실제로 Kuepper-Tetzel과 Nordmann³의 연구에 따르면 대면교육보다 와치 파티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고 한다. 와치 파티에는 채팅창이 있어 시청 도중 학습자가 질문을 하면 강사가 즉시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링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팅창에서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습자 간 참여도 눈에 띄었다.

추가로 제공되는 퀴즈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거나 전파할 수 있다⁵. 와치 파티에 필수적일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사회적, 인지적 과정을 통해 지식의 공동 생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요컨대, 와치 파티는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소속감을 함양하는 핵심 요소인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⁶

와치 파티를 통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권장사항

동영상을 교육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학습자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⁷. 적극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동영상 시청 시 학습자의 인지 부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Brame⁷은 교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컬러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화면 비율을 변경하거나, 짧은 비디오 텍스트를 사용하여 맥락이나 학습 목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그널링'을 활용하여 주요 개념을 강조할 것
 - 짧은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긴 동영상을 '작게 분류(Chunking)'할 것
 - 동영상 녹화 시 대화체를 사용하여 실재감 및 사회적 파트너십 향상
 - 영상 내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할 것
- 브라이튼 대학교(University of Brighton)⁴를 비롯한 교육 기관에서는 와치 파티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고려 사항은 개최하는 시간대와 시청자의 위치이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 역시 (자막 사용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점

와치 파티는 특히 공식적이거나 계획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유된 이슈에 대한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사람들이 함께 보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치 파티는 시청자들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거나 (분명히 학습자의 학습 시간에 적합한 시간대에 맞출 필요는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 하는 것 등에 의존적이지 않다.

참가자들은 집,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와치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배고프면 다과를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다. 신중하게 계획되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 대면학습과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면학습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과제

와치 파티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터넷 연결, 특히 연결 속도이다. 학습자에게 미리 영상을 다운로드 하도록 요청하거나, 와치 파티가 열리는 동안 데이터가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미리 로드할 것을 요청하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많아질수록 동영상 호스트의 스트리밍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청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 또는 시력이 나쁘거나 청각에 문제가 있는 학습자는 와치 파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다. 대안 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일부 또는 전체 영상에 수화 통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는 것 또한 옵션이 아니거나 이벤트 담당자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와치 파티는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 TV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항상 선호하는 시청 옵션은 아닐 수 있다.

결론

인터넷 대역폭이 증가하고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와치 파티는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는 동영상을 통해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학습 제공 업체의 소재지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국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참고자료

1. A conference paper about student engagement with MOOC videos:
Guo, P. J., Kim, J., & Rubin, R. (2014). How video production affects student engagement: An empirical study of MOOC videos. In Proceedings of the first ACM conference on Learning@ scale conference (pp. 41–50). Available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2393281_How_video_production_affects_student_engagement_An_empirical_study_of_MOOC_videos (Accessed 10/05/22).
2. 2A blog post from the Meta technology company about the launch of Watch Party:
Connolly, E. (2018). *Watch Party Launches Around the World*. Meta. Available at: <https://about.fb.com/news/2018/07/watch-party-launches-around-the-world> (Accessed 10/05/22).
3. An academic journal article about watch party lectures:
Kuepper-Tetzel, C. E., & Nordmann, E. (2021). Watch party lectures: synchronous delivery of asynchronous material. *Journal of Learning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22). Available at: <https://journal.aladinhe.ac.uk/index.php/jldhe/article/view/696> (Accessed 10/05/22).
4. A blog post assessing watch parties – ‘the hottest new trend’:
Macneill, Fiona (2021). Watch Parties – What, Why, Who, Where, How. ELEARNING TEAM. Available online at: <https://blogs.brighton.ac.uk/elearningteam/2021/03/03/watch-parties-what-why-who-where-how/> (Accessed 10/05/22).
5. An academic journal article on student engagement through quizzes:
Thomas, A.K., Smith, A.M., Kamal, K., & Gordon, L.T. (2020). Should you use frequent quizzing in your college course? Giving up 20 minutes of lecture time may pay off.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9(1), pp. 83–95. Available at <https://doi.org/10.1016/j.jarmac.2019.12.005> (Accessed 10/05/22).
6. An academic journal article on ‘a sense of belonging’:
Peacock, S., Cowan, J., Irvine, L., & Williams, J. (2020). An exploration into the importance of a sense of belonging for online learner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21(2), pp. 18–35. Available at: <https://doi.org/10.19173/irrodl.v20i5.4539> (Accessed 10/05/22).
7. An academic journal article on maximizing student learning from videos:
Brame, C. J. (2016). ‘Effective educational video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maximizing student learning from video content’. *CBE—Life Sciences Education*. Edited by K.E. Perez, 15(4), p. es6. Available at: <https://www.lifescied.org/doi/10.1187/cbe.16-03-0125> (Accessed 10/05/22).

출처

- A 6-minute YouTube video in which Dr Carolina Kuepper-Tetzel introduces ‘Watch-Parties’ as a teaching strategy during distance and remote teaching.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RUSmQe8M_4A (Accessed 10/05/22).
- A guide on how to set up a ‘virtual’ watch party from the MakeUseOf website. Available at: [https://www.makeuseof.com/how-to-host-virtual-watch-party/\(makeuseof.com\)](https://www.makeuseof.com/how-to-host-virtual-watch-party/(makeuseof.com)) (Accessed 10/05/22).
- Scener (<https://scener.com/>) – Scener is a free service that enables you to watch shows and movies socially from any major streaming platform.
- Echo360 (<https://echo360.com/>) – Echo360 combines video management with lecture capture and active learning to increase student success. It also includes analytics and peer learning tools.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

교육 인플루언서를 통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학습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교육 인플루언서

서론

YouTube, Facebook, TikTok, Instagram과 같이 쉽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고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부상했다. 인플루언서는 온라인에서 팬층이 두터운 사람으로, 그들을 팔로우하는 사람은 수천에서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미지,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영상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품, 서비스,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의견을 공유한다. 최근까지 인플루언서는 마케팅 영역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교육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배울지에 대한 학습자의 결정에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와 학습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콘텐츠와 교육 방식은 범위가 넓고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루언서는 교사로 대우받거나 그와 동등하게 여겨지고 있고, 교사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교수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인기를 이용하거나 그들의 관행을 이용해 온라인

교육의 형식과 품질 보증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은 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커뮤니티의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의 한 가지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특징

‘교육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에게 공식/공인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무료로 교육 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부분 교육기관 외부에서 활동한다¹⁾. 이들은 어려운 과학 개념을 설명하거나 수업 중에 어떻게 필기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정치에서 피트니스 훈련, 공예 기술에 이르기까지 비공식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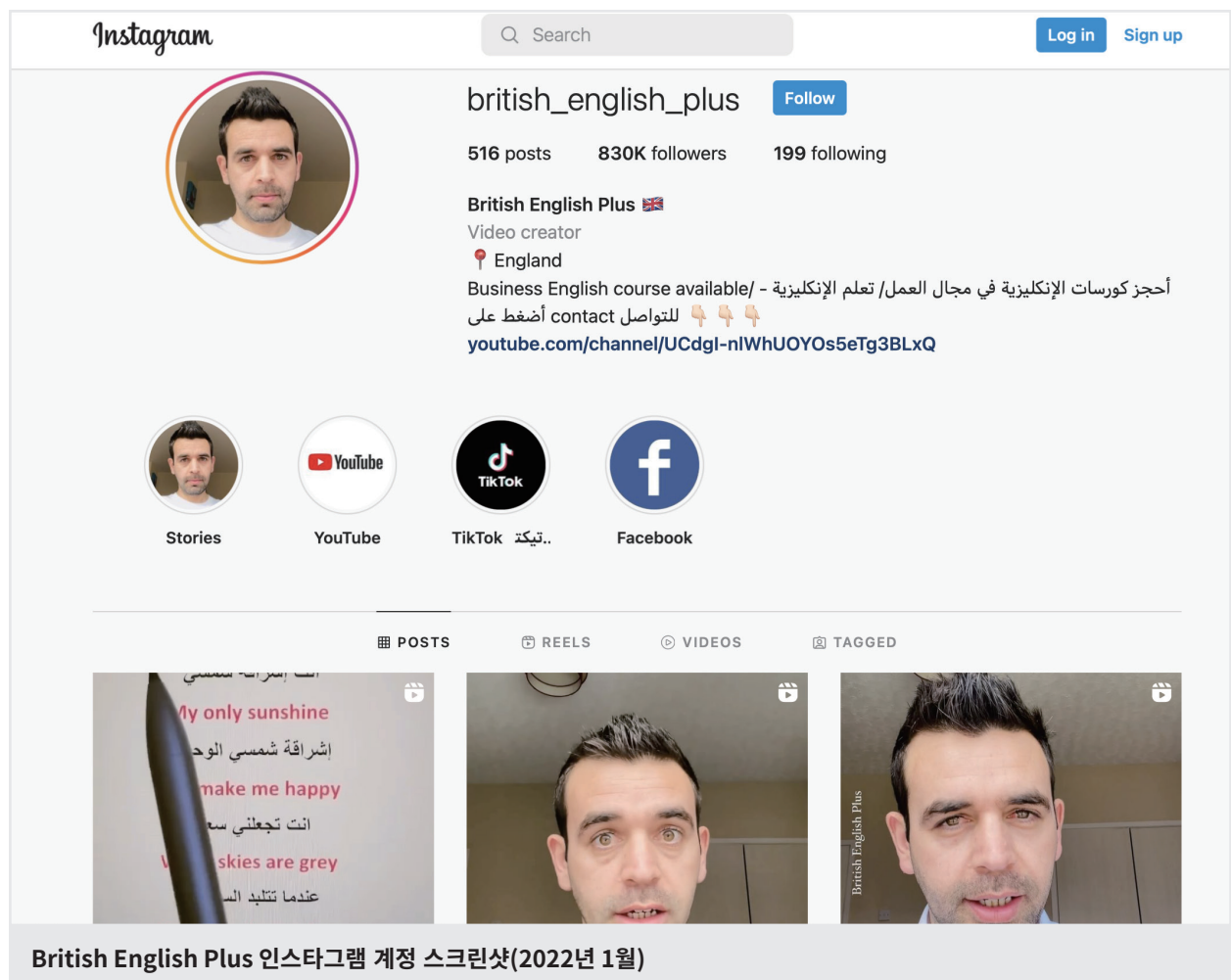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팔로워 기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팔로워에게 어필한다.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카메라에 대고 말하며’ 팔로워와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짧은 영상으로 아이디어, 개념, 또는 제품을 시연하거나 설명한다. 이런 영상에는 종종 애니메이션, 그래픽, 이미지, 음악

등 대화형 매체가 포함되어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높인다. 교육 인플루언서는 온라인 정체성을 만들고 팔로워가 ‘진정한’ 개인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팔로워들과 친분을 쌓으며,^{2,3} 이를 통해 팔로워들은 교수자 인플루언서에게 공감한다⁴. 팔로워들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보고 그들을 더 신뢰하며, 인플루언서의 전문지식, 그들의 역량 또는 정직성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이다.

인플루언서는 전 세계 무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팔로워들의 접근 및 참여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팔로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거나 대화를 할 수 있어 교수자(인플루언서)와 쉽게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들이 남긴 댓글에 반응하거나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피드백 또는 요청사항을 참조하여 팔로워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 준다.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의 예로는 Ahmad Al Rashid 의 ‘British English Plus’ 채널을 들 수 있는데, Ahmad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채널에서 백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British English Plus는 간단하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하루에 하나의 메시지, 1개의 주제를 다루며 청중(영국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충족시킨다. 팔로워들의 연령대는 18~35세로 중동, 북아프리카에 살거나 영국 및 유럽, 기타 지역 등 타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Ahmad 자신이 아랍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여서 더 인기가 있다.

대학들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소셜 인플루언서를 이용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학 활동을 홍보하고, 채널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셜 인플루언서 접근방식을 분석해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영국 Open University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교육 주제를 가지고 1분 ‘미니 강의(지질학자가 암석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를 제공한다. 독일 막스플랑크 협회(Max Planck Society)는 두 명의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학생들이 복잡한 과학 콘텐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동영상 시리즈를 만들었다¹.



인플루언서는 팔로워의 접근 및 참여를 막는 장벽을 줄이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다.



과제

‘교육 인플루언서’는 학습자가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용한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플루언서가 선택한 온라인 플랫폼과 스폰서의 요구에 따라 의도적으로 팔로워들을 악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신의 나쁜 의도를 숨기거나 편견이 담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교육 목적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약 그룹으로 볼 수 있는 학습자에게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 문화가 젊은층에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우려할 만하다⁶. 또한 어린이들은 법적 권리와 보호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인플루언서가 될 경우 벌어들이는 수익을 착취당할 수 있다⁷.

전문 표준이나 품질 보증 프로세스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면, 교육 가치를 추구하거나 건전한 이론적 토대를 세울 필요가 없다². 인플루언서는 선의는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에는 감독자가 없어 콘텐츠가 확인되지 않고 교육 접근 방식이 깊게 고려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을 특정 상업적 또는 마케팅 메시지에 노출시키거나, 모호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정보(예: 안전하지 않은 식단을 따르도록 홍보하거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사실’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는 교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않은 채 팔로워가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피드백을 잘못 활용할 수도 있다: 팔로워는 댓글창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도록 요청받지만, 댓글에 대한 중재가 전혀 없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게시되고, 학습 공간과 네트워크의 가치를 훼손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온라인 행동(왕따, 괴롭힘, 불쾌한 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홍보 자체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은 무엇이 교육적으로 유익한지가 아니라 플랫폼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접할 확률이 높다. 플랫폼은 또한 문제성이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대부분 가시성을 제어하고 편견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게시가 결정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홍보되는 콘텐츠가 사용자의 이해나 통제 없이 조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온라인 콘텐츠의 이전 시청 기록에 의해 개인의 감상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급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로 설명되어 왔다². 또한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자신을 ‘고용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개인 인플루언서에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인플루언서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결론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 형태가 부상하여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한 청중에게 도달하고 관심을 끌면서 이러한 교육이 시의적절해지고 중요성이 커졌다. 비평가들에게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은 상업화된 생활 방식과 기껏해야 동기가 의심스럽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교육 인플루언서는 수백만 명의 학습자와 소통하고 새로운 온라인 공간에서 청중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의 잠재력은 바로, 새로운 학습 공간, 유연성, 유비쿼터스, 학습 연결성을 최전면에 내세우는 교육 모델을 추구하는 현대 교육의 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소셜 학습이 점점 일상화되면서 공인된 교육기관의 교수자는 인플루언서가 어떤 식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처럼 인플루언서 주도로 제공되는 대규모 교육은 향후 교육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An article that describes the video series that the Max Planck Society (MPG) launched in 2020 in collaboration with two YouTube influencers with the aim to improve the reach of science communication: Donhauser, D., & Beck, C. (2021). Pushing the Max Planck YouTube Channel with the Help of Influencers. *Frontiers in Communication*, 5, p. 123. Available at: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comm.2020.601168/full> (Accessed: 14/05/22).
2. A scholarly article that presents a digital ethnographic case study of a health influencer in Australia and places this phenomenon within a digital cultures ecosystem: Hendry, N., Hartung, C., & Welch, R. (2021). Health education, social media, and tensions of authenticity in the 'influencer pedagogy' of health influencer Ashy Bines.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DOI: 10.1080/17439884.2021.2006691.
3. An article that analyses the role of an Italian educational influencer in the acquisition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skills, specifically mathematics: Gil-Quintana, J., Malvasi, V., Castillo-Abdul, B., & Romero-Rodríguez, L.M. (2020). Learning Leaders: Teachers or Youtubers? Participatory Culture and STEM Competencies in It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Sustainability* 12, 18, 7466. Available at: <https://doi.org/10.3390/su12187466> (Accessed: 14/05/22).
4. An article examining the content that 18 edu-influencers share on Instagram comprising the popular and racially diverse K12 collaborative, Teach Your Heart Out™: Shelton, C., Schroeder, S., & Curcio, R. (2020). Instagramming their hearts out: What do edu-influencers share on Instagram? *Contemporary Issues in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20(3), pp. 529–554. Available at: <https://www.learntechlib.org/p/215623/> (Accessed: 14/05/22).
5. The Instagram page of the influencer Ahmad Al Rashid's 'British English Plus', with over a half a million followers, showing the typical short video format and conversational style of engagement: Available at: https://www.instagram.com/british_english_plus/?utm_medium=copy_link (Accessed: 14/05/22).
6. A blog post that offers an investigation into the 'kidinfluencer' phenomenon, where children are at risk of social media influencers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entertaining, educating and advertising: Rahali, M., & Livingstone, S. (2022). Legal, honest and truthful: Advertising to children in the age of influencers. Available at: <http://blogs.lse.ac.uk/medialse/2022/02/10/legal-decent-honest-and-truthful-advertising-to-children-in-the-digital-age/> (Accessed: 14/05/22).
7. An online article investigating concerns that children as social media personalities are themselves vulnerable: Cezarita Cordeiro, V. (2021). "Kidfluencers" and Social Media: the evolution of child exploitation in the digital age. Available at: <https://www.humanium.org/en/kidfluencers-and-social-media-the-evolution-of-child-exploitation-in-the-digital-age/> (Accessed: 14/05/22).

출처

- A useful introduction to the phenomenon of social media influencing:
Connolly, B. (2018). Why Consumers Follow, Listen To, and Trust Influencers. Available at: http://www.olapic.com/resources/consumers-follow-listen-trust-influencers_article/ (Accessed: 14/05/22).
- Eve Cornwell's Youtube video channel. Eve Cornwell is a trainee solicitor, who gained 239,0000 subscribers while studying at Bristo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Law:
'How to make first-class lecture notes + cut down reading time'.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c4XRDNEW2no> (Accessed: 14/05/22).
- An example of craft skills taught on YouTube, showing a typical edu-influencer presentation style explicitly promoted as an educational offering:
'How To Sharpen a Chisel: Matt Estlea's Free Online Woodworking School':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RBRrwDkwSsQ> (Accessed: 14/05/22).
- An article from the British newspaper *The Guardian* that covers the rise of social media influencers and the impact they may have on universities:
Stokel-Walker, C. (2019). "The rise of EduTube: how social media influencers are shaping universities". 02 Dec 2019.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9/dec/02/the-rise-of-edutube-how-social-media-influencers-are-shaping-universities> (Accessed: 14/05/22).
- Example of a university 'influencer style' educational offering; A one minute YouTube 'mini-lecture':
'How to read a rock' by The Open University's Stacy Phillips.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kG0kFqW2YZ0> (Accessed: 14/05/22).
- An article that touches upon the changing nature of work and employment associated with digital technologies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digital labour as an emerging form of labour affecting schools and teaching:
Selwyn, N. (2021). Digital Labour meets the classroom. In *BERA Research Intelligence*, issue 145, Winter 2020/21. Available at: <http://der.monash.edu/wp-content/uploads/2021/01/Research-Intelligence-DEC-2020.pdf> (Accessed: 14/05/22).

가정의 교육학

문화적 학습 공간으로서의 가정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및 문화 측면에서 ‘집’을 학습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아이들이 집에서 홈스쿨링하거나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관련 있도록 교육 경험을 적합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가정의 교육학’이라는 이론적 개념은 종래의 ‘홈스쿨링’과는 다르다. 홈스쿨링이 학령기 아동을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라면, 가정의 교육학은 집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교수·학습 유형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한 특별한 문화 학습 방법을 탐색한다.

기원

2001년 델가도 베르날(Delgado Bernal)은 ‘가정 교육학’ 또는 ‘지역 교육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교육 방법과 사례는 가정, 가족 또는 지역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치카나/치카노 학생(멕시코 출신 또는 혈통을 가진 미국인으로, 이 섹션 뒷부분에서 ‘치카나/노’로 총칭)의 문화유산, 삶, 가족을 미국의 교육 환경에 통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집과 같이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교육 경험을 가지는, 문화적으로 특이한 방식을 찾으려고 했다¹. 또 다른 용어인 ‘가정(지역) 교육학’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들의 조국 또는 출생지와 연결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훈으로 설명할 수 있다².



치카노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명

예시

가정의 교육학은 경제 수준, 민족, 국적 등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되는 사람이나 그룹을 지칭하는 ‘소외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젊은 층이 학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가정의 교육학은 학업성취와 성공을 돕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관행과 같이 가정 환경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베르날은 치카나/노 학생들이 사회 및 학업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주목했다.

가정 교육학의 한 예는 미국에 사는 일부 라틴계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에게 조언(cuentos와 consejos라고 불림), 존중(respeto)과 ‘교육’(educacion)의 개념을 전달하고 어떻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지 설명하는 연구이다³. 가정의 교육학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보충 학습이다.

미국에서 치카노 가정을 대상으로 수행된 현상학적 연구(경험과 의식에 중점을 둠)를 살펴보면, 가정 교육학이 그들이 학교, 교사, 고등교육, 성별, 취업 등과 관련해 어떻게, 무엇을 이해하는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치카노 가정이 전적으로 가정 교육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성공과 의사소통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근면, 독립성, 삶의 기술(세탁과 요리 등)과 같은 측면을 중점적으로 배웠다.



학생들은 도움이 되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활용했다.



푸에르토리코(Puerto Rican)의 가정을 조사했을 때, 가정의 교육학은 가족 구성원들이 대학 학위를 소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⁴. 고등교육에서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했을 때 푸에르토리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우고 훈련 받아온 것을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는데, sin pelos en la lengua(‘말을 아끼지 않는’)와 pa’lante siempre pa’lante(‘항상 앞으로 나아가는’)와 같은 관점들을 좋은 예로 들었다.

가정 교육학에 대한 연구는 많은 목적과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대학 선택 과정, 대학 졸업 및 등록 시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⁵. 멘토가 있는 박사과정 학생의 학습을 탐색하는 목적도 있다¹. 가정 교육학은 공식 교육에서는 매우 드물게 활용되지만, 교수자가 학생들이 가정에서 얻는 지식에 대해 이해하면 학생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관련성 높은 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⁶.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문화적 관련성이 높은 책을 보면서 비판적 읽기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인종이나 불공정과 같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⁶. 비판적 관점에서 어떻게 가정 교육학을 활용할지, 모두가 알고 있는 ‘누구나 아는 지식’의 선입견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정 교수법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를 보면,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다른 문화권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거나 왕따 문제 등)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의 교육학은 교육 규범과 특정 학생 그룹이 가지고 있는 주류적 시각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유용하다. 예를 들면 역사적 분리 또는 문화적 박탈이 치카나/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³.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배운 경험으로 학생들은 어디에서 차별을 겪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가정 교수법을 잘 이해하면 이를 토대로 더 좋은 교육 정책을 세우고 더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 예로 치카나/노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훈련 교과과정을 들 수 있다⁸.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입안자와 고등교육 기관은 정책입안자와 기관이 ‘1세대 대학 학생(가족 구성원 중에서 처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면밀히 조사하여 소수 문화가 배경인 학생들의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 교육학을 활용하여 소외된 학생 그룹은 더 좋은 학습 경험을 하면서 학습 성과를 낼 수 있다.

가정의 교육학은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유용한 자기 성찰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초점은 교육적 맥락 밖에서 배우는 사람들과 지역의 공동체에 맞춰져 있다.

과제/장벽

교사가 문화감응(Culturally Responsive) 가정 교수법을 활용하려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문화 지식, 경험, 사고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².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정해진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성공적인 가정 교육학을 위해서 교사가 자신의 관행이나 제도적 관행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하며, 교실에서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학습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론

교수·학습에 가정 교육학을 적용하려면 학생들의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 교육 사례를 조사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는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교수법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치카나/노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이해하려는 연구에서도 잘 보여준다. 가정의 교육학이 교사의 비판적 성찰과 접근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가정의 교육학을 통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목소리와 문화적 지식을 공적 교육에 도입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 경험을 위한 가정 환경

참고자료

1. A journal article focusing on students studying for their doctorate degree and their experiences of pedagogies of the home:
Esposito, J., Lee, T., Limes-Taylor Henderson, K., Mason, A., Outler, A, Rodriguez Jackson, J., Washington, R., & Whitaker-Lea, L. (2017). Doctoral students' experiences with pedagogies of the home, pedagogies of love, and mentoring in the academy. *Educational Studies*, 53(2), pp. 155–177. Available at: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0131946.2017.1286589> (Accessed 08/06/22).
2. A journal article that looks at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and home(land) pedagogies:
Norton, N., & Bentley, C. (2006). Making the connection: extending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rough home(land) pedagogies. *Feminist Teacher*, 17(1), pp.52–70. Available at: <https://www.jstor.org/stable/40546002> (Accessed 08/06/22).
3. A conference paper seeking to analyse pedagogies of the home in the form of race, class and gender in education:
Guzman-Martinez, C. (2012). Pedagogies of the Home: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Race, Class, and Gender in Education. Presented at the 39th Annual: NACCS@40, Chicago, IL. March 16th 2012. Available at: <https://core.ac.uk/download/70408476.pdf> (Accessed 08/03/22).
4. A journal article looking at pedagogies of the home among Puerto Rican families:
Garcia, N.M. (2019) 'Pa'lante, siempre pa'lante: pedagogies of the home among Puerto Rican college educate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32(6), pp. 576–590. doi:10.1080/09518398.2019.1609116. Available at: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9518398.2019.1609116> (Accessed 08/06/22).
5. A journal article looking at four Chicana/o families to understand pedagogies of the home and the role of parent engagement:
Garcia, N.M., & Bernal, D.D. (2021). Remembering and revisiting pedagogies of the hom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8(3), pp. 567–601. Available at: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3102/0002831220954431> (Accessed 08/06/22).
6. A journal article looking at pedagogies of the home present within picture books:
Terrones, L. (2017). Pedagogies of the home in the art and narrative of chicana/o picturebooks. *The Bilingual Review*, XXXIII (5), pp.137–163. Available at: <https://bilingualreviewjournal.org/index.php/br/article/view/297> (Accessed 08/06/22).
7. A journal article that looks at different teaching method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Gonzalez, J.C., & Portillos, E. (2012). Teaching from a critical perspective: Conceptualisation, reflection, and application of chicana/o pedag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Pedagogy*, 4(1), pp.18–34. Available at: <http://www.partnershipsjournal.org/index.php/ijcp/article/view/305> (Accessed 08/06/22).
8. A journal article that looks at educational practices in the Chicano community:
Souflee, F., & Schmitt, G. (1974). Educating for Practice in Chicano Community.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10(3), pp.75–84. Available at: <https://www.jstor.org/stable/23038503> (Accessed 11/05/22).

출처

- A small set of slides by Dolores Delgado Bernal giving an overview of pedagogies of the home: Learning and living pedagogies of the home. Available at: <https://www.slideshare.net/tnguyen0780/learning-and-living-pedagogies-of-the-home> (Accessed 11/05/22).
- A journal article which looks at 'invisible pedagogies in home education' and the ways children are afforded greater autonomy of their learning: Invisible pedagogies in home education: Freedom, power and control – Open Research Online. Available at: <https://oro.open.ac.uk/78416/> (Accessed 11/05/22).
- A book that explores both Chicana/Latina feminist definit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Chapter 7 investigates learning and living pedagogies of the home: Chicana/Latina Education in Everyday Life. Available at: <https://sunypress.edu/Books/C/Chicana-Latina-Education-in-Everyday-Life> (Accessed 11/05/22).
- A YouTube video of a TEDx talk which explores ways to mold an ethnic identity that transcends cultural expectations and stereotypes of Chicano: Moving Beyond the Chicano Borderlands | Michelle Navarro | TEDxMountainViewCollege.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1CSsK9kiYsQ> (Accessed 11/05/22).
- An online article exploring the history of the Chicano student movement: A personal history of the Chicano student movement. Available at: <https://www.marxists.org/history/erol/ncm-7/lrs-flores.htm> (Accessed 11/05/22).

불편함의 교수법

학습과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의 감정 활용

서론

‘불편함의 교수법’은 학생들이 인종차별, 억압, 사회적 불의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상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기성찰의 과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불편함을 유발하는 감정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끌어내는 감정을 통해 학생들은 주제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그에 대한 가설들에 도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학생들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자와 교수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가르치면 불편함이 주는 의의를 강조할 수 있어, 학생들이 더 잘 배우고 경험할 것이라 믿는다. 학생들이 타인의 입장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은 ‘우리과 저들’ 같은 이분법적 태도(이분법의 한쪽이 ‘우리, 좋은, 옳은, 도덕적인’으로 간주되어 현상 유지나 주류 문화를 반영)에 대해 토론하고 비판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다^{1,2}.

그러나 불편함의 교습법은 교수자가 학생에게 정서적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감정과 불편함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불편함의 교수법은 1990년대 후반 메간 볼러 (Megan Boler)³가 고안했으며,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 신학교육에서 인종차별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호주의 비원주민 학생들의 원주민 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활용
- 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 ‘공연 예술’ 교육
- 현대 건축 교육
- 정치적 분쟁에 대한 교육 및 이해
- 이민 연구
- 교육의 탈식민화
-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어려운 감정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배경

수십 년간 교실에서 까다로운 주제를 가르치려는 시도가 있었다³. 한 예로, 교사인 제인 엘리엇(Jane Elliot)은 1968년에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파란색 눈/갈색 눈 실험’을 했다⁴. 엘리엇 교사는 28명의 3학년 학생들을 ‘파란색 눈’과 ‘갈색 눈’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루 종일 파란색 눈 그룹은 우월하고, 똑똑하고, 청결하며, 행동이 바르다고 여겨졌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휴식시간이 있었고 갈색 눈 그룹보다 물을 먼저 마실 수 있었다.

‘열등’ (갈색 눈) 그룹은 구별하기 쉽도록 목에 손수건을 둘렀다.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실험했다. 갈색 눈 그룹이 우월한 것으로 설정되었고, 파란색 눈 그룹은 목에 손수건을 둘렀다. 실험 결과 ‘열등’ 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성적이 낮고, 자존감이 낮으며,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에서 ‘우등’ 그룹에 의해 열외되기도 했다. 실험이 끝나고 ‘열등’ 그룹으로 대우받았던 학생들은 친구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엘리엇 교사는 학생들에게 차별이 어떤 느낌인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감정은 기존의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까다로운 시나리오나 주제를 감정적으로 다루면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그룹이 더 많은 특권을 갖는 시스템인 ‘특권 시스템’의 현상 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편함의 교수법 실행하기

불편함의 교수법에서 감정은 기존의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인 반면, 학생과 교사가 이러한 감정에 대해 집단으로 논의하고 성찰하면 이해 능력을 키워 ‘새로운 행동 방식과 존재 방식’을 통해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⁴. 감정을 완전히 탐구하려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볼러(Boler)¹에 따르면,

교수자들이 불편함의 교수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 1. 방관 대 목적:**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관자’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성찰할 수 있는 ‘목적자’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학생들은 전환학습을 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 2. 분노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교사는 특정 주제를 탐구하는 동안 분노와 기타 불편한 감정을 풀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현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와 학생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점에 노출된다. 자신만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3. 무죄와 유죄라는 이분법적 함정에 빠지지 않기:** 인종차별과 같은 까다로운 주제를 다룰 때 교수자는 ‘무죄 대 유죄’라는 이분법적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는 비생산적이기도 하고 백인 학생들이 비난을 받거나, 흥미를 잃거나, 심지어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반성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 4. 모호한 자아로 사는 법 학습:** 교사와 학생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강구하고 현상 유지에 도전하며 자신의 약점을 보여줘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콘텐츠와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동안 채택하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하고 까다로운 주제를 가르치려면 교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지 알아야 한다.

Casinader³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1.** 교사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 2.** 학교 지도부와 학생들 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 3.** 교사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학습 주제를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경험한 교사는 불편함의 교수법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역량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 개발 또한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 문화 관련 불편함의 교수법을 가르치면 교사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교수법이 어떻게 채택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서 대다수의 비원주민 학생들에게 원주민의 보건에 대해 가르치는 수업이었다⁵. 원주민보건문화안전학과 3학년 1학기 학부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모두 참여하도록 요청 받았지만, 218명 중 82명만 수업에 참여했다. 11개의 각기 다른 ‘보건 전문가’ 학부 프로그램의 핵심이기에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비판적 성찰과 문화적 안전(‘문화 지식은 문화 집단에 속한다’는 인식)이 핵심인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 주민의 건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⁵. ‘자기 성찰’, ‘의료체계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반인종차별주의’, ‘백인 특권’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고, 교수자들은 비판적 성찰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교육팀에는 원주민 학자, 보건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며, 원주민 교수법 및 전략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공유하고, 정보를 재구성하고, 비선형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학습할 것을 제안했다.

학습 활동은 선입견에 도전하고 사회 내 권력 역학에서 학생들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평가 과제는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에 대해 2,000단어 내외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선택한 공통 주제에는 도둑맞은 세대(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쫓겨난 원주민 아이들), 백인 특권, 세대 간 트라우마, 인종 차별 등이 있었다. 학생들은 선택한 주제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주류 문화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개인적, 직업적 문화를 이용하고 정서적 반응을 돌이켜보아야 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전, 직면, 혼란, 실망, 절망, 무지, 압도, 수치심, 충격, 속상함, 걱정 또는 아픔’⁵ 등과 같이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고 (p. 30) 이것들은 대부분 지배 사회에서 원주민이 대우받는 방식과 역사에 무지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고 성찰한 결과, 일부 학생들은 수업에 더 잘 참여했고,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발전시키려는 동기가 부여되었다.

과제

교수자와 그들이 속한 교육기관이 불편함의 교수법을 채택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 바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배울 만큼 감정적이지 않고, 불편함을 배울지라도 학생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⁶. 따라서 교사가 교수법을 잘 알 수 있고, 학생들의 감정과 토론이 예측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교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찾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원주민 보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편함의 교수법이 사회, 문화,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교사와 보건 전문가도 원주민이었고, 원주민 사회, 문화, 정치에 익숙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까다로운 주제에 익숙하거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이념적, 정치적인 이유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교육기관, 교사, 학생들이 불편함의 교수법을 채택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결론

소수 그룹, 배제되고 차별을 받는 그룹이 더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사회와 교육 체계를 원함에 따라 불편함의 교수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불편함의 교수법에 대한 지지자들은 감정도 학습의 일부분이고, 학생들이 감정을 학습한다면 관점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믿고 있다. 불편함의 교수법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 불평등 및 기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사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불편함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공감하기 어렵고, 불이익을 받으며,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불편함의 교수법은 교사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경험한 후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여 생각의 관점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참고자료

1. A seminal book by Megan Boler which has provided the foundations of subsequent work by this author and other studies mentioned here:
Boler, M. (1999). *Feeling power: Emotions and education*. Routledge, New York.
2. An academic article that reports on an intervention to include the pedagogy of discomfort reflective practice in a service-learning course at the University of Cape Town, South Africa:
Bheekie, A., & van Huyssteen, M. (2015). Be Mindful of Your Discomfort: An Approach to Contextualiz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on Service-Learning and Community Engagement*, 3(1). Available at: <https://journals.sfu.ca/iarslce/index.php/journal/article/view/129> (Accessed 17/05/22).
3. An article written to help teachers prepare themselves and their students for the exploration of challenging topics in the classroom:
Casinader, N. (2021). To understand racism, kids must empathise with its impact — and teachers must embrace discomfort. *The Conversation*. Available at: <https://theconversation.com/to-understand-racism-kids-must-empathise-with-its-impact-and-teachers-must-embrace-discomfort-144516> (Accessed 17/05/22).
4. A video recording of Jane Elliott's exercise with a class of children, on YouTube:
Brown eyes and blue eyes racism experiment (Children Session) - Jane Elliott.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oGvoXeXCoUY> (Accessed 17/05/22).
5. Academic article about using pedagogy of discomfort to train youth practitioners about gender-related violence:
Cullen, F., & Whelan, M. (2021). Pedagogies of Discomfort and Care: Balancing Critical Tensions in Delivering Gender-Related Violence Training to Youth Practitioners. *Education Sciences*, 11(9), p. 562. Available at: <https://www.mdpi.com/2227-7102/11/9/562> (Accessed 17/05/22).
6. An academic paper reporting findings from a study that investigated the use of the pedagogy of discomfort to support the teaching of First People's health and issues to non-indigenous students at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Mills, K., & Creedy, D. (2021). The 'Pedagogy of discomfort':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non-indigenous student learning in a First Peoples health course. *The Australian Journal of Indigenous Education*, 50(1), pp. 29-37. Available at: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australian-journal-of-indigenous-education/article/abs/pedagogy-of-discomfort-a-qualitative-exploration-of-nonindigenous-student-learning-in-a-first-peoples-health-course/C653D581D659CF9F5182D82774075FFB> (Accessed 17/05/22).
7. An article which explores the ethical implications of engaging in a pedagogy of discomfort and uses Butler's reflections on ethical violence and norms as a point of departure:
Zembylas, M. (2015). 'Pedagogy of discomfort' and its ethical implications: the tensions of ethical violence in social justice education. *Ethics and Education*, 10(2), pp. 163-174.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7449642.2015.1039274?journalCode=ceae20> (Accessed 17/05/22).

출처

- Blog post by Brenda Leibowitz (2011) titled 'Boler and Zembylas on a "Pedagogy of discomfort"':
<https://blogs.sun.ac.za/hopefulpedagoguessu/2011/03/13/zembylas-on-a-pedagogy-of-discomfort/> (Accessed 17/05/22).
- A book summary of Megan Boler's 1998 foundational work on the Pedagogy of Discomfort available on the *Thinking with Emotion* website:
<https://teachingemotion.weebly.com/megan-boler.html> (Accessed 17/05/22).
- A blog post by Pat Romano (2021) titled 'Beyond a Pedagogy of Discomfort' available on the *Resist Violence* website: <https://resist-violence.com/beyond-a-pedagogy-of-discomfort/> (Accessed 17/05/22)

웰빙 교육

모든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웰빙 증진

서론

웰빙 교육은 학습자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증진하는 교육이다. 웰빙 교육은 학업 성취도,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을 높여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며 학습 도중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다¹. 정신이 건강하다는 뜻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일상의 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 상태’를 말한다(세계보건기구, 2018).² 정신은 건강하게 기능(웰빙)할 때도 있고 기능이 좋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계속 되풀이된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정신 상태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최근까지 학습자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은 주목을 받았지만, 정신 건강과 웰빙 교육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웰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과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를 배우고 정신 건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웰빙 교육은 학습자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탐색하는 동안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관련 지식을 쌓고, 기술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웰빙 교육에는 웰빙을 증진하고 학습자의 문화, 삶 등에서 웰빙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학습 과정에서 연민, 공감과 같은 가치를 포함하고,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의 웰빙 또한 증진시켜 준다.



웰빙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기획하기

왜 지금인가?

불안함, 우울증, 자해, 섭식 장애 등 일상생활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전 세계 학생들에 대한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³.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학생들 대부분은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대학의 지식 부족과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및 대학 폐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⁴. 예를 들어 Refuge와 같은 영국 자선단체는 가정폭력 전화 상담률이 700% 증가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에 겪은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슬픔, 상실감, 사별, 어려운 가정생활, 학교 폐쇄 관련 불평등이 원인이 되었다.

팬데믹 이후, 유네스코(2021)⁵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교육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없다. 이러한 강력한 연결고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보다 더 가시적이고 설득력 있었던 적이 없었다.’

웰빙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모든 학교와 대학에서 웰빙 교육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2020년에 Universities UK는 정신 건강 증진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대학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대학에 촉구하는 Step Change Framework⁶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학 생활의 모든 측면이 학생과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지원한다’(p. 10)는 전제 하에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 건강 및 웰빙에 미치는 불평등, 문화 및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신의 웰빙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교육 기관에 학습 환경을 평가하고 학습자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아래 네 개의 요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충족될 수 있다.

1. **학습:** 예를 들어, 대학은 교육과정 설계가 정신 건강과 웰빙을 고려하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2. **지원:** 예를 들어, 대학은 지원 서비스가 지역 환경에 맞게 조정되고 필요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3. **업무:** 예를 들어, 대학은 관리자들이 직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4. **생활:** 예를 들어, 대학은 학생들이 좋은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와 유사하게, 유네스코(2021)⁵는 모든 학교/대학이 웰빙에 가까이 도달하기 위한 다섯 단계의 계획을 제안했다:

1. 학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제적 표준을 참고하고 실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한다.
2. 우선순위, 목표, 주요 이해당사자를 확인한다.
3. 실행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4. 계획을 실행한다.
5. 목표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지원전략은 개별 학생 그룹의 요구에 따라 맞춤화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증거 기반 사례 활용, 자원의 배분, 학교와 지역 사회 간 파트너십 강화, 실행을 위한 교과과정 및 관련 자원 개발, 학교 보건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13개의 실행 영역이 제안되었다.

웰빙 교육이 성공하려면 모든 학교와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즉,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된 비전을 함께 정립하고 공유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동 개발의 의미는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대학이 정신 건강 지원전략을 세우는 등 학생들을 전 단계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별 학생 그룹의 요구에 맞게 지원전략을 맞춤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색인종 학생은 인종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LGBTQI+ 학생은 우울감이 높고 자살 충동 비율이 높은 반면, 성인 학습자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종일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정 학생 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웰빙 교육으로 문서화하고 지원 사항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신 건강과 웰빙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학생들이 배려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 캠퍼스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친구, 인간관계 관리 방법, 문제 해결 방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캠페인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연중무휴로 언제라도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래 교육 프로젝트⁷는 정신 건강과 웰빙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니셔티브이다. 영국 정신건강협회가 이끄는 이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통해 정신 건강에 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신 건강 문제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준다.
- 정신 건강을 돌보고 웰빙을 추구하는 방법을 장려한다.
-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는 혁신적인 또래 간 훈련을 통해 달성되고 있다. 먼저, 교직원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과 동료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일련의 수업을 통해 훈련시킨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어린 동료들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 학습자에게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수업은 각 50분씩 진행되며, 기본 정신 건강 인식, 위험 및 보호 요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성,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 등 5가지 주제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수업에서는 정신 건강의 개념과 범위를 소개하고, 정신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고 자신이 겪는 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또한 정신 건강에 관한 흔한 오해들도 바로잡아준다.

과제

웰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모든 학교(또는 대학)가 웰빙 교육을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 웰빙 교육이 성공하려면 모든 교수·학습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웰빙과 정신 건강 교육은 여전히 과외활동이라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 위기 또는 정신 건강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과정들은 일부 교육 기관에만 있다. 또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론

모든 학교와 대학은 시급하게 웰빙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교 또는 대학 안팎에서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신 건강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문제를 식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 건강 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와 같은 낙인을 최소화하고 제거하여 이러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고 높은 성취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

참고자료

1. A journal paper arguing against the idea of a trade-off between children's wellbeing and achievement:
Clarke, T. (2020) Children's wellbeing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e dangerous discourse of 'trade-offs' in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vol.18(3), pp. 263–294. Available at: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1477878520980197> (Accessed 9/5/22).
2. A fact sheet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fining mental health and well being:
WHO, (2018) *Mental health: strengthening our response*. Available at: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ental-health-strengthening-our-response> (Accessed 9/5/22).
3. A report detailing high stress and anxiety levels amongst university students:
The Insight Network (2020) *University Student Mental Health Survey (2020)*. Available at: [https://assets.website-files.com/602d05d13b303dec233e5ce3/60305923a557c3641f1a7808_Mental%20Health%20Report%202019%20\(2020\).pdf](https://assets.website-files.com/602d05d13b303dec233e5ce3/60305923a557c3641f1a7808_Mental%20Health%20Report%202019%20(2020).pdf) (Accessed 9/5/22).
4. A report on the challenge facing schools and pupils detailing Covid19-related challenges faced by students, extracted from:
Mental Health Foundation (2021) A guide on returning to school after the coronavirus lockdown. Available at: <https://www.mentalhealth.org.uk/coronavirus/returning-school-after-lockdown/challenge-facing-schools-pupils> (Accessed 9/5/22).
5. A report and guidance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health promotion in schools:
WHO/UNESCO (2021) *Making every school a health-promoting school*. Available at: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25073> (Accessed 9/5/22).
6. A report on how to ensure universities are 'mentally healthy':
Universities UK (2021) *Stepchange: Mentally Healthy Universities*. Available at: <https://www.universitiesuk.ac.uk/sites/default/files/field/downloads/2021-07/uuk-stepchange-mhu.pdf#page=12> (Accessed 9/5/22).
7. Homepage of the website for the Peer Education Project, a secondary school based, educational programme that aims to give young people the skills and knowledge they need to safeguard their mental health and that of their peers:
Mental Health Foundation (2022) Peer Education Project (PEP). Available at: <https://www.mentalhealth.org.uk/projects/peer-education-project-pep> (Accessed 9/5/22).

출처

- An article presenting an overview of findings from a number of studies on the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Davies, E. B., Morriss, R., & Glazebrook, C. (2014). Computer-delivered and web-based interventions to improve depression,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6(5), e130. Available at: <https://www.jmir.org/2014/5/e130/> (Accessed 12/5/22).
- A review of 22 research studies focusing on mental health in higher education:
Hartrey, L., Denieffe, S., & Wells, J. S. (2017). A systematic review of barriers and supports to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with mental health difficulties in higher education. *Mental Health & Prevention*, 6, 26–43. Available at: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2212657016300800> (Accessed 12/5/22).
- A report from Student Minds, the UK's student mental health charity:
Co-producing mental health strategies with students: A guide for the higher education sector. Available at: https://www.studentminds.org.uk/uploads/3/7/8/4/3784584/cpdn_document_artwork.pdf (Accessed 9/5/22).
- A collection of wellbeing pedagogies, from the Warwick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Academy, The University of Warwick:
Warwick wellbeing pedagogies library. Available at: https://warwick.ac.uk/fac/cross_fac/academy/funding/2016-17fundedprojects/wellbeingpedagogieslibrary/ (Accessed 9/5/22).
- A report on the prevention of mental health conditions in the UK:
Care Policy and Evaluation Centr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The economic case for investing in the prevention of mental health conditions in the UK*. Available at: https://www.mentalhealth.org.uk/sites/default/files/MHF_Investing_In_Prevention_FULLReport_FINAL.pdf (Accessed 9/5/22).
Resources from the project "Mental Wellbeing in the Curriculum", developed at The Open University's Institute of Educational Technology (2022). Available at: <https://wellbeinginthecurriculum.weebly.com/resources.html> (Accessed 9/5/22).
- Advice from Timely MD, a student telehealth company in the US:
Timely MD (2022). *7 Tips for Creating a Caring Campus Culture* (A campus culture strategy in the US that supports mental health). Available at: <https://timely.md/blog/7-steps-to-creating-a-caring-campus-culture/> (Accessed 9/7/22)

걷기와 대화

걸으면서 대화하기를 통한 학습 효과 향상

서론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걷는 행위가 학습의 핵심 요소인 사고와 논의를 촉진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해 왔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집에서 앉은 자세로 고립된 학습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화와 걷기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교수법을 부활, 적용 또는 고안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실내에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산책이나 하이킹 등 야외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과 컴퓨터나 TV 앞에 앉는 것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공한다. 모바일 학습이 주목을 받는 현대에,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학습 활동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과 나란히 더 오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걷기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분전환이 되며, 마음을 맑게 해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발표 리허설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연설을 준비하거나 배울 때 암기가 더 잘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걷거나 그룹과 함께 걸으면 마주보고 있을 때와는 달리 나란히 옆에서 대화할 수 있다. 서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소통하고, 성찰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야외에서의 대화 학습

교육적 맥락에서의 예시

걷기와 대화는 여러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되어 왔다.

- 심리적, 신체적 웰빙 지원
- 교수 방법 연구
- 비공식적 학습

다른 사람과 걷거나 그룹과 함께 걸으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동안에 심리적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소됨에 따라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이 치료 또는 상담에 이용되기도 한다¹.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에 의료 분야 논문을 통해 증명되어 왔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보호자에 대해 ‘덜 위협적인’ 지도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교육적 맥락에서도 학생들이 감독, 멘토, 코치와 걸으면서 어려운 과제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교육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헤드폰을 끼고 집 주변을 산책할 수 있고 원격으로 개별지도를 받아 수업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 수 있다.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은 그룹으로 걸으며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식 네트워크(개인의 지식과 사회적 자원을 확장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3}. 온라인 교육, 학습,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태블릿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걷기 모임’은 건강에도 좋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교육 연구에 분야에 있어서도,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이 교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 방식이 이용되는데 이를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라고 한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연구 참가자와 함께 걸으면, 우리는 그들이 매일 출근길에서 경험하는 것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측면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단기 시위 조직을 따르는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타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다⁵. 걷기와 대화 연구 방식은 박물관 주변을 산책하는 관람객의 사용자 경험을 포착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어 이러한 공간에서의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⁶.

어떤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머리의 위치를 포착하는 가상현실 헬멧 등 장비를 착용해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는 이동 중에 참가자들이 대화하면서 나누는 교감이나 관계 양상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7,8}.



걸으면서 대화하기는 상호작용, 성찰, 유대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비공식적 학습의 맥락으로,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을 활용했다. 런던에 기반을 둔 Learning Unlimited에서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르면,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비공식 학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민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한다.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의 언어 능력 개발
- 지역 사회에 대한 지식의 확장
- 지역 서비스, 지원, 여가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 획득

영국 리버풀의 Walk and Talk(걸으면서 대화하기) 프로그램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리버풀의 문화적 명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 서로 알아가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월간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공원, 박물관, 갤러리 방문이 포함된다.

과제와 장벽

걸으며 대화하면 동시에 여러 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걷다가 비틀거리거나, 무언가(배수로, 가로등 기둥, 차도)에 걸터 들어가거나, 논의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 걷다가 주변이 마음에 들면 준비나 허가 없이 공개 포럼에 공유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성공적인 ‘걸으면서 대화하기’를 위해서는 걷기만을 위해 사용 가능한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보다 ‘앉아서 하는’ 인터뷰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의 성격과 장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가 모든 상황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신체적으로 걸을 수 없거나 사람들과 말하거나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교육 방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야외나 날씨가 변덕스러운 환경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참여자에게 적합하도록 이 교수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 등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학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참가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참가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결론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은 대화를 촉진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 참가자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일상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 방식을 교육 및 비공식적 학습에서 활용한 결과, 교수·학습 방식으로서의 잠재력이 입증되었다. 문제점으로는 보행 공간에 대한 접근성, 위치 제약, 걸으면서 말함에 따라 주의가 산만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향후 치료 또는 참가자의 학습 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References

1. An academic journal article about a coaching programme called 'discover your talent' in a country estate setting in the Netherlands:
van den Berg, A. E., & Beute, F. (2021). Walk it off! The effectiveness of walk and talk coaching in nature for individuals with burnout-and stress-related complai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76, August 2021, 101641. Available at: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72494421000943> (Accessed 12/05/22).
2. An academic journal article describing the benefits of a walking programme for mental health patients in a region of the UK:
Cooley, S. J., Robertson, N., Jones, C. R., & Scordellis, J-A. (2021). "Walk to Wellbeing" in Community Mental Health: Urban and Green Space Walks Provide Transferable Biopsychosocial Benefits. *Ecopsychology*, 13(2), pp. 84–95. Available at: <https://www.liebertpub.com/doi/pdfplus/10.1089/eco.2020.0050> (Accessed 12/05/22).
3. An academic journal article about a 'Walk and Talk' group in an inner city location in the UK. The group was originally set up by a Clinical Psychologist, but has been peer led for most of its life:
Muir, J., & McGrath, L. (2018). Life lines: Loss, loneliness and expanding meshworks with an urban Walk and Talk group. *Health & Place*, 53, pp. 164–172. Available at: <https://repository.uel.ac.uk/download/526ede9f26442277869cc43c7a6a106a0be739c65903fa673508669dce5e5502/433580/Life%2520Lines.pdf> (Accessed 12/05/22).
4. A paper in an archive of conference proceedings, focusing on walk-and-talk interviews as a research method used in a project in Latvia:
Pranka, M. (2020). The walk-and-talk methodology – researching place and people. In SHS Web of Conferences, Vol. 85, 03007. 7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Scientific Conference SOCIETY. HEALTH. WELFARE, 2018. Available at: <https://doi.org/10.1051/shsconf/20208503007> (Accessed 12/05/22).
5. A paper describing a study of a three-day protest walk held in May 2019 to advocate for peace in Northern Ireland:
Lubit, A. J., & Gidley, D. (2020). Becoming part of a temporary protest organization through embodied walking ethnography. *Journal of Organizational Ethnography*, 10(1), pp. 79–84. Available at: https://pureadmin.qub.ac.uk/ws/portalfiles/portal/225911841/Green_Copy_Becoming_JOE.pdf (Accessed 12/05/22).
6. A research article introducing the walk-along method as a potential approach to study visitor interactions and experiences at an exhibition in Denmark:
Skov, M., Lykke, M., & Jantzen, C. (2018). Introducing walk-alongs in visitor studies: A mobile method approach to studying user experience. *Visitor Studies*, 21(2), pp. 189–210. Available at: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645578.2018.1549396> (Accessed 08/06/22).
7. A conference poster presentation about 'go-along' interviewing as a research method in virtual reality:
Kostakos, P., Alavesa, P., Oppenlaender, J., & Hosio, S. (2019, November). VR ethnography: a pilot study on the use of virtual reality 'go-along' interviews in Google street view. In *Proceedings of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and Ubiquitous Multimedia* (pp. 1–5). Available at: <https://dl.acm.org/doi/abs/10.1145/3365610.3368422> (Accessed 12/05/22).
8. A conference paper describing the use of a wearable device that supports monitoring social interactions, to estimate the level of rapport during a 'walk and talk' experience:
Hwang, T. H., Effenberg, A. O., & Blume, H. (2019, January). A rapport and gait monitoring system using a single head-worn IMU during walk and talk. In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ICCE) (pp. 1–5). IEEE. Available at: <https://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8662087> (Accessed 08/06/22).

Resources

- Blog post about philosophy and the joys of walking – Oxford University Press’s Academic Insights for the Thinking World – Five philosophers on the joys of walking. Available at: <https://blog.oup.com/2020/02/five-philosophers-on-the-joys-of-walking/> (Accessed 11/05/22).
- Let’s Walk and Talk – a narrative adventure game where you take the role of a person traveling to different important moments in their life. As you travel through the city you learn more about yourself and the companion of your choice. Available at: <https://escholarship.org/uc/item/6c19j2mp> (Let’s Walk and Talk (escholarship.org) (Accessed 11/05/22).
- 48 walk-and-talk cards (back-to-school activities) for discussion or debating lessons for children aged 11-14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from the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Available at: <https://www.tes.com/teaching-resource/48-walk-and-talk-cards-back-to-school-activities-12333640> (Accessed 11/05/22).
- Learning Unlimited – Walk & Talk project, information and short video about a resident sharing historical information. Available at: <https://www.learningunlimited.co/projects/walk-talk/> (Accessed 11/05/22).
- Liverpool Walk and Talk for Refugees, launched by Bayswater College Liverpool. Available at: <https://www.spacehive.com/walk-and-talk-for-refugees> (Accessed 11/05/22).
- A magazine article discussing ‘teaching in the field’, different approaches to fieldwork design and preparation, and potential solutions (and their limitations) for an inclusive field experience. Available at: Chiarella, D., & Vurro, G. (2020). Fieldwork and disability: an overview for an inclusive experience. *Geological Magazine*, 157(11), pp. 1933–1938. <https://pubs.geoscienceworld.org/geolmag/article/157/11/1933/592790> (Accessed 11/05/22).
- An article illustrating how mobile technologies have been used in several field trips involv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Available at: Whitmeyer, S. J., Atchison, C. and Collins, T. D. (2020). Using Mobile Technologies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Inclusion in Field-Based Learning. *GSA Today*, 30. https://www.geosociety.org/GSA/Publications/GSA_Today/GSA/GSAToday/science/G462A/article.aspx (Accessed 11/05/22)

INNOVATING PEDAGOGY 2022

(한국어판)

교수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수, 학습, 평가에 대한 모색

